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발표회

16개국 초등학교 3학년의 행복감 국제비교

일 시 2017년 5월 2일(화) 오후 2시~4시

장 소 이룸센터 누리홀(지하1층)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Program

☘ **일시:** 2017년 5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시간	내용	
14:00 ~ 14:05 (5분)	환영사: 송혜승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 축사: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14:05 ~ 15:00 (55분)	1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감 국제비교 연구	
	발표1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감 수준과 특징 : 16개국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 안재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2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의 행복 요인 발표: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3	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더 빨리 감소할까? : 국제적 시각에서 본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의 행복감 변화 비교연구 발표: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00 ~ 15:50 (50분)	2부: 패널 토론	
	좌장	이재연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
	토론	김광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경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팀장)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장)		
	한상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15:50 ~ 16:00 (10분)	전체 질의응답 / 폐회	



Contents

●● 환영사	1
● 송혜승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	
●● 축하	3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발표 1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감 수준과 특징	5
: 16개국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 안재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 2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 요인	33
●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 3 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더 빨리 감소할까?	63
: 국제적 시각에서 본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의 행복감 변화 비교연구	
●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유민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토론문	91

환영사

송혜승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 송혜승입니다.

오늘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2012년 아동 삶의 질 전반을 측정하는 종합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국제간 및 국내 16개 시·도간 아동 삶의 질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16개국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저처럼 친구들과 마냥 뛰어놀고 매일매일이 즐겁기만 한 시절로, 좋은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삶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친구관계와 학교, 선생님의 만족도가 매우 낮고, 학업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만족도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맘껏 뛰어놀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2015년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10년 내 아동행복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삶부터 이렇게 파악한데 지금과 같은 수준의 노력으로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10년 후 대한민국

아이들이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 어른들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번 연구발표회를 통해 그 해답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연구를 총괄하고 연구발표회를 함께 주최한 이봉주 교수님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모든 연구진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2부 토론을 맡아 진행해주실 좌장님과 모든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후원하고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아이들이 행복해지는데 힘쓰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향긋한 봄 내음이 점점 짙어가는 4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입니다.

먼저 ‘2017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발표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발표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세이브더칠드런 김노보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한국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내·외빈 분들에게도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1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지구촌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센터는 2030년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도 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동 삶
의 만족도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끄러운 기성세대들의 진지한 고민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발표회는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 아동의 행복한 삶과 권리가 존중되도록 국회차원에서의 노력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7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발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발표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실천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감 수준과 특징
: 16개국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안재진_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감 수준과 특징 : 16개국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안재진_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론

우리나라 아동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낮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중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동들은 언제부터 행복감이 낮은 것일까? 즉, 다른 국가의 아동들과 비교할 때 행복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ISCWeB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의 행복감 수준을 다른 국가의 아동들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3학년은 자기기입식 응답이 가능한 최저연령으로 아동이 느끼는 행복감을 직접 측정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어린 연령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체계에서 본다면, 초등학교 3학년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진입하기 직전의 시기로, 아직까지는 중학생들의 행복감 저하의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학업스트레스나 과도한 사교육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고 여겨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복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것은 학업스트레스나 사교육 등 학업관련 요인이 과연 우리 아동들의 행복감 저하의 주요 요인인지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의 행복감을 ISCWeB에 포함된 15개국 국가의 8세 아동들과 비교하고, 특히 어떤 영역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높고, 어떤 영역에서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들의 전반적인 행복감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을 밝히고, 해당 영역에서 아동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2. ISCWeB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 소개

Children’s Worlds, the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 (ISCWeB)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이다. 이 조사는 아동의 삶과 일상적 활동, 시간사용,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 자신의 행복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평가에 대한 믿을 수 있고 대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ww.isciweb.org).

ISCWeB 조사는 2010년 6개국에서의 파일럿 조사로 시작되었으며 파일럿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세, 10세, 12세 아동에 대한 각각의 질문지가 개발되었다. 1차 조사에는 Algeria, Brazil, Canada, Chile, England, Israel, Nepal, Romania, Rwanda, South Africa, South Korea, Spain, Uganda, United States 등 14개국이 참여하였고, 2013년-2015년 이루어진 2차 조사에는 16개국에서 56,000명 이상의 8, 10,12세 아동들이 참여하였다. 이 중 본 연구는 각국의 만 8세 아동들의 표본을 사용하여 비교를 실시하였다. 국가별 조사에 참여한 8세 아동의 표본 수는 다음과 같다. 국가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조사가 실시된 경우, 괄호 안에 해당지역을 표시하였다.

〈표 1〉 국가별 8세 아동 표본 수

Country	Final sample
Algeria (Western)	1244
Colombia (Antioquia)	902
Estonia	1076
Ethiopia	953
Germany	1056
Israel	886
Malta	802
Nepal	975
Norway	930
Poland (Wielkopolska)	1021
Romania	1242
South Africa (W Cape)	996
South Korea	2432
Spain (Catalonia)	1032
Turkey (Istanbul)	959
UK (England)	990
Total	17496

Unweighted sample, after data clea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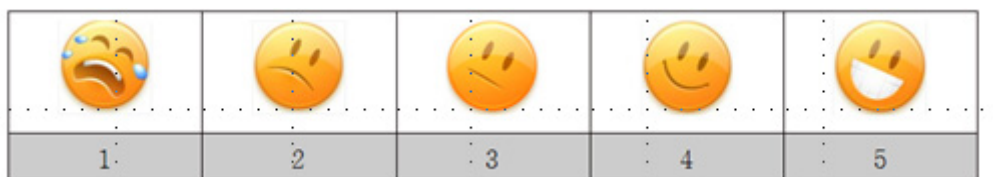
출처: Rees, G., Andresen, S., & Gradshaw, J. (eds) (2016). *Children’s views on their lives and well-being in 16 countries: A report on the Children’s Worlds survey of children aged eight years old, 2013–2015*. York, UK: Children’s Worlds Project (ISCWeB)

질문지는 다음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Rees, G., Andresen, S., & Gradshaw, J. 2016).

- 개인 특성(Individual characteristics)
- 가정 및 함께 사는 사람들(Home and people lived with)
- 물질적 특성(Money and possessions)
- 친구 및 대인관계(Friends and other people)
- 지역사회(Local area)
- 학교(School)
- 시간사용(Time use)
- 전반적인 인생 특성(Life in general)

질문지의 문항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주요 유형으로 구분된다.

- 사실에 기반한 문항: 예 - 연령과 성별
- 빈도 문항: 예- 특정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는지에 대한 응답항목이 ‘거의 또는 전혀’, ‘일주일에 한 번 미만’, ‘일주일에 한 두번’, ‘매일하거나 거의 매일’과 같은 4점 척도로 구성됨
- 동의 문항: 각각의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찬성하지 않음’, ‘약간 찬성’, ‘어느 정도 찬성’, ‘상당히 찬성’, ‘완전히 찬성’의 5점 척도로 표시
- 만족도 문항: 삶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아래와 같은 5점 이모티콘 척도에 표시



3. 주요 결과

본 연구에서는 16개국 중 한국의 8세 아동들이 차지하는 순위를 중심으로 영역별 행복도 수준을 살펴보았다. 질문지의 문항을 주관적 만족도 문항과 아동의 인식 문항(빈도 및 동의)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표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와 <표 3>에 나타나 있다.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16개국 중 14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이에 따라 지표들이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나, 영역별로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삶에 대한 만족도 지표 순위

영역	지표 (만족도)	한국 순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14
가족	내가 살고 있는 집	8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7
	우리 가족 모두	4
	우리 가족의 생활	11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돈이나 물건)	14
관계	친구	14
	다른 사람들	16
학교	우리 반 아이들	12
	학교 성적	16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	13
	선생님들과의 관계	16
동네	동네 사람들	13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의 태도	6*
	밖에서 놀 수 있는 장소	7
	내가 살고 있는 동네	11
나 자신	건강	10*
	몸	15*
	외모	15*
시간사용	자유시간에 하는 일	14
기타	내가 가진 자유	12
	어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줌	13
	안전	13

노란셀 = 상위권(1~5위), 무색셀=중위권(6~10위), 빨간셀=하위권(11~16위)

〈표 3〉 영역별 인식(빈도 및 동의문항) 기반 지표 순위

영역	지표 (인식)	한국 순위
가족	안전	14
	공부할 장소	8
	부모님의 존중	14
	공평한 대우	15
	함께 보내는 시간	14
물질	옷, 컴퓨터, 인터넷, 자동차, 텔레비전	1
	가족이 돈 문제로 걱정함**	1*
관계	친구들이 잘 대해줌	15
	친구들이 많음	14
학교	선생님의 존중	14
	공평한 대우	14
	안전	13
	학교가는 것이 좋음	15
	맞거나 따돌림 당함**	1
동네	놀 수 있는 장소	15
	안전	16
시간사용	가족과 함께 대화	16
	가족과 함께 놀기	16
	가족과 함께 공부하기	14
	친구와 함께 대화	7
	친구와 함께 놀기	12
	친구와 함께 공부하기 (과외, 학원 제외)	11
	방과 후 교육 (음악, 운동, 춤, 외국어 등)	3
	재미를 위한 책 읽기 / 숙제하기	13
	집안일 돕기	16
	TV 보기 / 컴퓨터하기	14
	운동하기	12
아동 권리	아동이 무슨 권리를 갖는지 모름	12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봄	14
	우리나라 어른들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함	15

노란셀 = 상위권(1~5위), 무색셀=중위권(6~10위), 빨간셀=하위권(11~16위)

* 15개국 참여

** 순위가 높을 수록 긍정적인 것임. 즉, 순위가 높을 수록 “가족이 돈 문제로 걱정을 안 함”, “학교에서 맞거나 따돌림 당하는 비율이 낮음”

1) 가족

가족 영역에서 아동들은 가족 모두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안전, 존중, 공평한 대우, 함께 보내는 시간 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고,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살고 있는 집이나 공부할 장소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수준이었다. 가족 또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는 아동들이 규범적인 차원에서 가족 또는 부모이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응답해야 할 '사회적 바람직성 편견'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안전이나 존중, 공평한 대우 등에 대한 인식은 실제 느끼는 대로 응답했을 때 낮은 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 물질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 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물질 영역이다. 8세 아동들이 경험하는 물질적 결핍의 정도는 16개국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가족이 돈 문제로 걱정하는 빈도도 가장 적었으나, 아동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질에 대한 만족도는 최하위권이었다. 이는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비교'라는 기제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옷, 컴퓨터, 인터넷, 자동차, TV 등의 필수품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지만, 주변에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과의 비교를 통해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관계

친구 및 대인관계는 8세 아동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 중 하나이며, 인식 문항에서도 친구들이 잘 대해주거나 친구들이 많다는 문항에 대한 찬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친구 및 대인관계에서의 일관된 낮은 수준의 행복감은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4) 학교

학교도 아동들의 행복도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주요 영역 중 하나이다. 특히 학교 성적과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전세계적으로 최하위라는 점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이 이미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학교에서의 경험, 교사와의 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특히 선생님으로부터 존중 받거나 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러한 교사에 대한 인식이 학교를 가기 싫게 만드는 주요 요인일 수 있을 것이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아동들이 맞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요소가 없다고 해서 아동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아동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야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5) 동네

동네에 대한 행복도 수준은 다소 비일관성을 보인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병원 의사선생님의 태도나 밖에서 놀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수준이었으나, 놀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하다거나 안전하다는 인식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6) 나 자신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몸이나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나 자신의 신체에 대해 건강한 편이지만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다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아동들도 내면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7) 시간사용

우리나라 8세 아동들은 다른 나라 아동들에 비해 방과 후 교육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은 중간 수준이었다. 반면 친구와 함께 놀거나 가족들과 함께 하는 활동, 운동하기, TV보기, 독서 등 다른 모든 활동은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간사용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가 14번째로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점이다.

8) 권리

우리나라 아동들의 권리 인식이나 권리보장 경험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했으며, 우리나라 어른들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여기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기타

삶의 기타 영역에서 아동들의 만족도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유나 어른들이 자신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정도,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전세계적으로 하위권에 속했다.

4. 논의

우리나라 만 8세 아동들의 행복도를 영역별로 국제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친구 및 대인관계와 학교에서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만 8세들은 학교 성적으로 인한 만족도가 최하위로 나타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업스트레스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에서의 여러 경험들을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영역의 경우 객관적 지표들이 나쁘지 않음에도 아동들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는데, 아동들의 물질적 결핍 정도나 건강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은 높은 수준이거나 중간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느끼는 물질에 대한 만족도나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습관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했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성인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님의 존중, 선생님의 존중, 어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줌, 우리나라 어른들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함 등에서 아동들의 인식수준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아동권리 존중과 관련된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간사용패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아동들은 방과 후 교육에만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을 뿐, 나머지 활동들의 빈도는 모두 하위권 수준이었고, 특히 집안 일 돕기, 가족과 함께 대화, 가족과 함께 놀기 등 집안에서 또는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들은 최하위권이었다. 이러한 시간사용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 역시 최하위로 나타나, 아동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쓰지 못하고,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만 8세 아동들도 이미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자유시간 결여와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주관적 만족도가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도 저하는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성장해가면서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많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에서 문제의 '조기발견'이 중시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행복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조기발견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전의 시기부터 아동의 행복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감 수준과 특징 :16개국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안 재 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시: 2017년 5월 2일 오후 2시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

목 차

I ISCWeB 소개

II 10개 영역 주요지표 결과 소개

- Life as a whole
- Home and family
- Money and possessions
- Friends and other relationships
- School
- Local area
- Self
- Time use
- Other aspects of life
- Children's rights



I ISCWeB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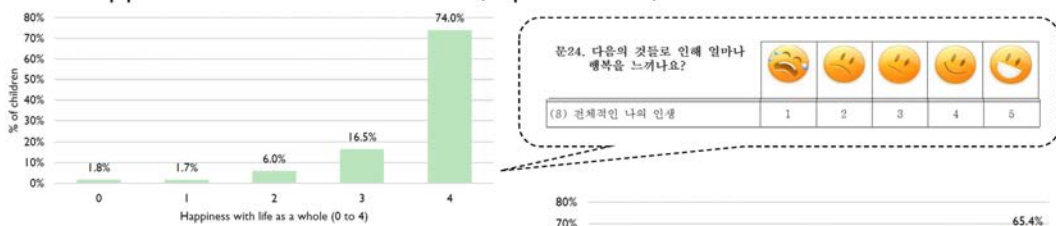
- **조사기간:** 2013년-2015년 (2nd Wave)
- **조사국가:** Algeria, Colombia, Estonia, Ethiopia, Germany, Israel, Malta, Nepal, Norway, Poland, Romania, South Africa, South Korea, Spain, Turkey, United Kingdom 등 16개 국가
- **조사대상:** 각 국가의 만8세 아동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3학년)
- **조사인원:** 총 17, 496명 (한국 2,432명)
- **조사영역:** 개인 특성, 가족/학교/동네 특성, 물질적 특성, 친구 및 대인관계, 시간사용, 전반적인 인생 특성 등

3

II-1. Life as a Wh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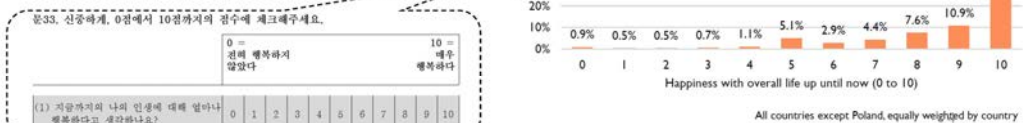
- Happiness with life as a whole (5-point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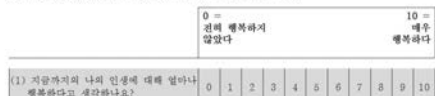
문24. 다음의 것들로 인해 얼마나 행복을 느끼나요?



- Happiness with overall life up until now (11-point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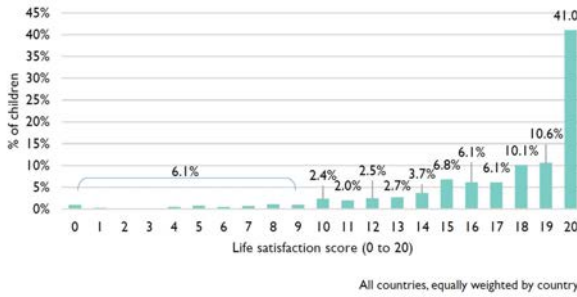
문33. 신중하게, 0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에 채크해주세요.



II-1. Life as a Whole



□ Life satisfaction scale



문31. 다음에 대해 얼마나 완성하나요?

	완성하지 않음	약간 완성	어느 정도 완성	상당히 완성	완전히 완성	모르 겠음
(1)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1	2	3	4	5	6
(2) 내 인생은 딱 만족스럽다	1	2	3	4	5	6
(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1	2	3	4	5	6
(4)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5) 내 삶에 있는 것들은 훌륭하다	1	2	3	4	5	6

5

II-1. Life as a Whole



□ Summary of statistics for life satisfaction

	Mean score (out of 10)		% with low well-being (<5 out of 10)		% with very high well-being (10 out of 10)	
	Mean	Rank	%	Rank	%	Rank
Algeria*	8.78	6	4.7%	7	42.1%	8
Colombia*	8.93	3	2.6%	1	50.5%	5
Estonia	8.41	10	7.1%	11	35.5%	12
Ethiopia	7.49	16	12.4%	16	22.3%	15
Germany	8.39	12	7.9%	12	35.2%	13
Israel	8.89	4	3.8%	5	53.2%	3
Malta	8.60	8	5.6%	8	47.1%	6
Nepal	7.68	15	7.0%	10	13.3%	16
Norway	8.64	7	6.6%	9	37.1%	11
Poland*	9.00	2	3.9%	6	52.5%	4
Romania	9.08	1	2.7%	2	58.4%	1
S Africa*	8.54	11	3.7%	4	38.8%	10
S Korea	7.91	14	9.2%	15	30.0%	14
Spain*	8.83	5	3.0%	3	44.9%	7
Turkey*	8.59	9	8.2%	13	55.3%	2
UK*	8.39	13	9.1%	14	40.9%	9
All	8.50		6.1%		41.0%	

All countries

• 한국 8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 수준

6

II-2. Home and Family



□ Agreement questions about home and family life

	Not at all	A little	Somewhat	A lot	Totally
I feel safe at home	4%	4%	6%	17%	68%
I have a quiet place to study at home	11%	8%	10%	20%	51%
My parents listen to me and take what I say into account.	5%	7%	12%	21%	55%
We have a good time together in my family	4%	4%	8%	18%	67%
My parents treat me fairly	5%	5%	9%	18%	63%

8 year old survey, all countries, equally weighted by country

문6. 다음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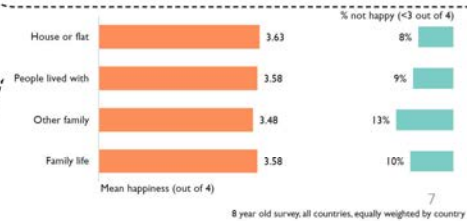
	완전히 않음	약간 찬성	어느 정도 찬성	상당히 찬성	완전히 찬성	모르 겠음
(1) 나는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2) 나는 집에서 조용하게 공부할 곳이 있다	1	2	3	4	5	6
(3) 우리 부모님(혹은 나를 돌봐주시는 다른 어른)은 내 말을 잘 들어주시고,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5	6
(4) 우리 가족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6
(5) 우리 부모님(혹은 나를 돌봐주시는 어른)은 나를 공평하게 대해주신다	1	2	3	4	5	6

□ Satisfaction questions about home and family life

문7. 다음의 것들로 인해 얼마나 행복을 느끼나요?



	1	2	3	4	5
(1) 내가 살고 있는 집	1	2	3	4	5
(2)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1	2	3	4	5
(3) 우리 가족 모두	1	2	3	4	5
(4) 우리 가족의 생활	1	2	3	4	5



II-2. Home and Family



□ Summary of rankings by country for each question

	Safe	Place to study	Parents listen	Parents treat fairly	Have good time	House or flat	People lived with	Other people in family	Family life
Algeria*	13	11	6	7	13	11	11	7	6
Colombia*	2	4	1	1	7	6	6	5	5
Estonia	4	3	12	8	3	10	13	15	10
Ethiopia	15	16	16	11	15	15	15	14	14
Germany	10	12	8	12	12	7	10	6	8
Israel	6	10	3	5	6	9	12	9	7
Malta	12	14	10	13	8	12	8	8	15
Nepal	16	13	15	16	16	16	16	13	16
Norway	7	9	5	6	2	5	1	1	9
Poland*	1	1	2	2	1	2	5		4
Romania	5	2	4	3	10	3	2	3	2
S.Africa*	8	5	9	10	5	14	14	10	13
S Korea*	14	8	14	15	14	8	7	4	11
Spain*	3	7	7	4	4	4	3	2	1
Turkey*	9	6	13	14	9	1	4	11	3
UK*	11	15	11	9	11	13	9	12	12

- 가정 내의 안전, 처우, 시간사용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하위권.
- 하지만 집에 대한 만족, 동거 가족 및 확대 가족 만족 등은 중상위권으로 나타나는 특성.

II-3. Money and Possessions



□ Percentage of children having access to material items by country

	Good clothes	Computer	Internet	Family car	TV
Algeria*	97%	55%	46%	61%	93%
Colombia*	97%	74%	68%	45%	97%
Estonia	99%	91%	86%	86%	na
Ethiopia	85%	2%	2%	3%	26%
Germany	95%	74%	71%	90%	na
Israel	98%	91%	89%	91%	94%
Malta	98%	90%	93%	93%	98%
Nepal	96%	12%	6%	9%	64%
Norway	100%	91%	94%	96%	99%
Poland*	99%	94%	91%	91%	na
Romania	99%	85%	76%	65%	96%
S Africa*	99%	67%	58%	78%	95%
S Korea	99%	96%	95%	92%	96%
Spain*	97%	89%	88%	89%	98%
Turkey	89%	75%	64%	61%	97%
UK*	96%	87%	88%	84%	96%

문9. 다음의 것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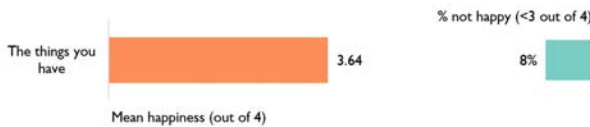
	없음	있음	모르겠음
(1) 학교에 입고 갈 수 있는 좋은 상태의 옷	1	2	3
(2)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1	2	3
(3) 인터넷 접속하기	1	2	3
(4) 가족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1	2	3
(5) 집에서 볼 수 있는 텔레비전	1	2	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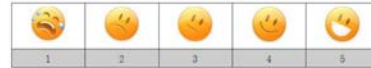
II-3. Money and Posse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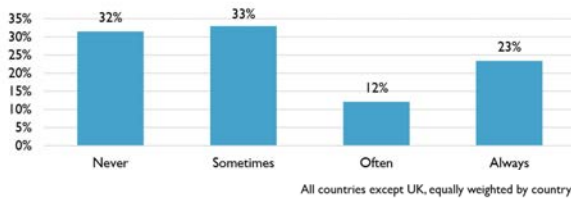
□ Satisfaction with 'the things you h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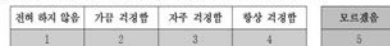
문10. 내가 가지고 있는 것(내가 가진 돈이나 물건)들로 인해 얼마나 행복할까요?



□ Frequency of worrying about family money



문11. 나는 우리 가족의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자주 걱정을 하나요?



10

II-3. Money and Possessions



□ Summary of ranking by country

	Mean items lacked	Inequality in items lacked	Mean satisfaction	Low satisfaction	Mean worries	High worries
Algeria*	14	14	12	12	9	6
Colombia*	13	16	5	5	14	14
Estonia	7	9	13	11	12	8
Ethiopia	16	3	16	16	3	4
Germany	9	11	8	7	2	2
Israel	5	6	7	9	11	15
Malta	4	4	3	6	7	9
Nepal	15	8	15	15	13	12
Norway	2	1	9	8	4	3
Poland*	3	5	1	1	5	5
Romania	10	12	4	3	10	7
SAfrica*	11	13	10	10	6	10
S Korea	1	2	14	14	1	1
Spain*	6	7	2	2	15	13
Turkey*	12	15	6	4	8	11
UK*	8	10	11	13	na	na

All countries, except family money worries question which was not asked in the UK

- 객관적 지표는 매우 높고, 가족의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비율도 매우 낮음.
- 그러나 물질적 소유에 대한 만족도는 최하위권

11

II-4. Friends and Other Relationships



□ Agreement questions about friend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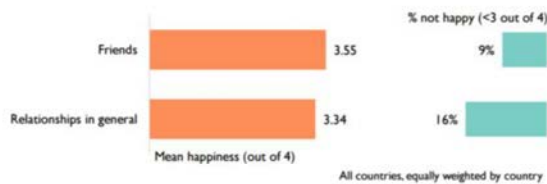
	Not at all	A little	Somewhat	A lot	Totally
My friends are usually nice to me	4%	6%	11%	22%	57%
I have enough friends	5%	5%	7%	17%	65%

All countries, equally weighted by country

문12. 다음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나요?

	완전히 찬성	약간 찬성	어느 정도 찬성	완전히 찬성	모르겠음
(1) 내 친구들은 대체로 나에게 잘 대해준다	1	2	3	4	5
(2) 나는 친구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1	2	3	4	5

□ Satisfaction questions about friendships and relationships in general



문13. 다음의 것들로 인해 얼마나 행복을 느끼나요?

	😊	😊😊	😊😊😊	😊😊😊😊	😊😊😊😊😊
(1) 나의 친구들	1	2	3	4	5
(2) 우리 동네 사람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1	2	3	4	5

12

II-4. Friends and Other Relationships



□ Summary rankings by country for each question

	Friends nice	Enough friends	Satisfied friends	Satisfied relationships
Algeria*	2	11	4	2
Colombia*	13	12	7	7
Estonia	11	2	13	12
Ethiopia	12	15	16	15
Germany	7	7	8	9
Israel	1	5	12	13
Malta	10	10	3	14
Nepal	16	16	15	11
Norway	6	3	6	1
Poland*	3	1	5	6
Romania	8	9	9	5
S Africa*	5	6	10	10
S Korea	15	14	14	16
Spain*	4	4	1	3
Turkey*	9	8	2	4
UK*	14	13	11	8

• 친구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한국은 에티오피아, 네팔과 함께 하위권에 있으며, 모든 문항에 14위권 아래에 있는 나라는 한국 뿐임

13

II-5. School



□ Agreement questions about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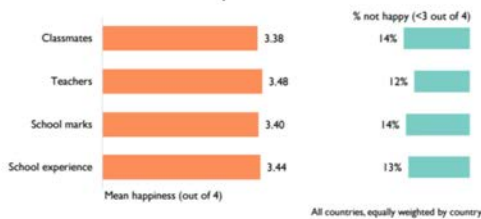
	Not at all	A little	Somewhat	A lot	Totally
My teachers listen to me and take what I say into account	4%	5%	9%	21%	61%
My teachers treat me fairly	5%	4%	8%	19%	64%
I feel safe at school	4%	4%	7%	18%	67%
I like going to school	7%	5%	8%	19%	62%

All countries, equally weighted by country

문17. 다음에 대해 얼마나 관심하나요?

	관심하지 않음	약간 관심	어느 정도 관심	상당히 관심	완전히 관심	모르겠음
(1) 우리 선생님은 내 말을 잘 들어주시고 내 의견을 존중해주신다	1	2	3	4	5	6
(2)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좋다	1	2	3	4	5	6
(3) 우리 선생님은 나를 칭찬하게 대해주신다	1	2	3	4	5	6
(4) 나는 학교에 있으면 편안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 Satisfaction questions about school



문20. 다음의 것들로 인해 얼마나 행복을 느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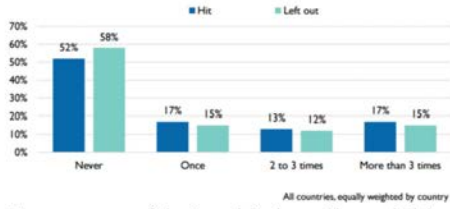
	1	2	3	4	5
(1) 우리 반 아이들	1	2	3	4	5
(2) 나의 학교성적	1	2	3	4	5
(3) 학교에서 경험하는 일들	1	2	3	4	5
(4) 선생님들과의 관계	1	2	3	4	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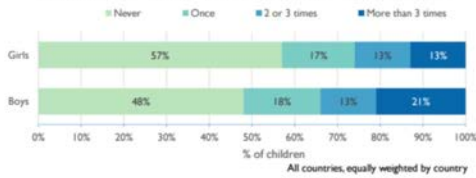
II-5. School



□ Frequency questions about being bullied at school in the last month



□ Frequency of being hit by other children in school in the last month by gender



문18. 지난 한 달 동안에, 아래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전혀	1달 동안 한 번	1달 동안 2-3번	1달 동안 4번 이상	모르겠음
(1) 우리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나를 때렸다	1	2	3	4	5
(2) 우리 반에서 다른 아이들이 나를 따돌렸다	1	2	3	4	5

15

II-5. School



□ Summary rankings by country for each question

	Agreement questions				Satisfaction questions			
	Teachers listen	Teachers fair	Safe	Like	Class mates	Teachers	Marks	School exp.
Algeria*	1	4	2	1	3	3	6	4
Colombia*	4	1	1	3	8	6	8	1
Estonia	15	9	11	11	16	11	11	11
Ethiopia	12	12	15	2	13	15	14	16
Germany	13	15	14	16	15	10	15	15
Israel	8	8	10	12	14	12	5	14
Malta	5	6	12	7	6	5	10	7
Nepal	16	16	16	13	10	13	12	12
Norway	2	5	5	8	1	1	4	6
Poland*	9	3	4	10	5	7	2	8
Romania	10	2	6	5	7	4	1	3
S Africa*	7	11	7	6	11	9	9	10
S Korea	14	14	13	15	12	16	16	13
Spain*	6	7	8	9	2	8	7	5
Turkey*	3	13	3	4	4	2	3	2
UK*	11	10	9	14	9	14	13	9

All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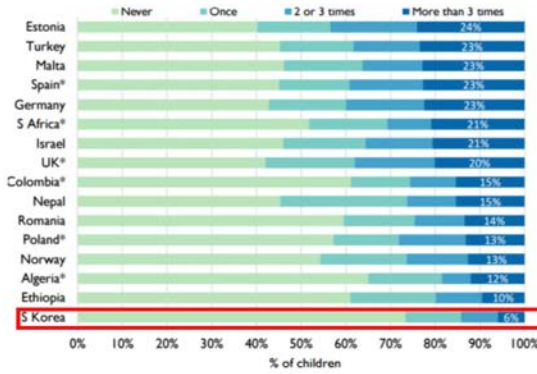
- 학교생활에 관한 긍정 및 만족도 질문에 있어서 한국은 독일 및 네팔과 함께 하위권에 있으며, 모든 문항에 12위권 아래에 있는 나라는 한국 뿐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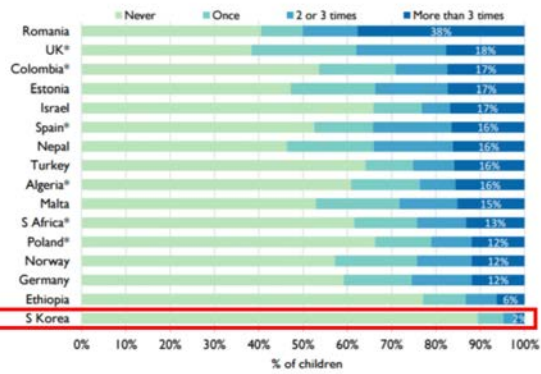
II-5. School



□ Frequency of being hit by other children in the last month by country



□ Frequency of being left out by other children in the last month by country



• 반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거나 맞는 비율은 16개국 중 한국이 가장 적음

17

II-6. Local Area



□ Agreement questions about local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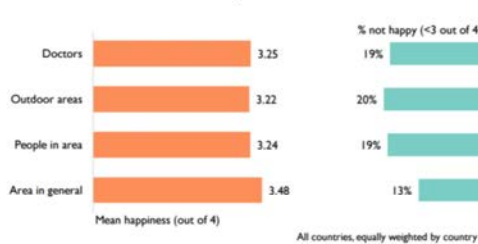
	Not at all	A little	Somewhat	A lot	Totally
In my area there are enough places to play or to have a good time	9%	7%	10%	17%	57%
I feel safe when I walk around in the area I live in	9%	7%	11%	19%	53%

All countries, equally weighted by country

문15. 다음에 대해 얼마나 관심하시나요?

	관심하지 않음	약간 관심	어느 정도 관심	상당히 관심	완전히 관심	모름
(1) 우리 동네에는 즐겁게 놀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다	1	2	3	4	5	6
(2)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 Satisfaction questions about local area



문16. 다음의 것들로 인해 얼마나 행복을 느끼나요?

	1	2	3	4	5
(1)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	1	2	3	4	5
(2) 우리 동네에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장소	1	2	3	4	5
(3) 내가 살고 있는 동네	1	2	3	4	5

문13. 다음에 것들로 인해 얼마나 행복을 느끼나요?

	1	2	3	4	5
(1) 나의 친구들	1	2	3	4	5
(2) 우리 동네 사람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1	2	3	4	5

II-6. Local Area



□ Summary rankings by country for each question

	Place to play	Feel safe	Local people	Doctors	Outdoor areas	Area in general
Algeria*	10	5	4	8	6	9
Colombia*	4	6	7	1	5	6
Estonia	1	3	8	12	10	8
Ethiopia	12	14	14	13	15	15
Germany	8	11	15	7	13	16
Israel	5	4	11	11	9	7
Malta	14	12	16	15	11	12
Nepal	16	15	9	14	12	14
Norway	3	1	1	3	3	1
Poland*	2	8	2	na	2	3
Romania	13	7	3	2	8	4
S Africa*	7	13	12	10	16	13
S Korea	15	16	13	6	7	11
Spain*	6	2	5	5	1	5
Turkey*	9	9	6	4	4	2
UK*	11	10	10	9	14	10

All countries (except the question about doctors was not asked in Po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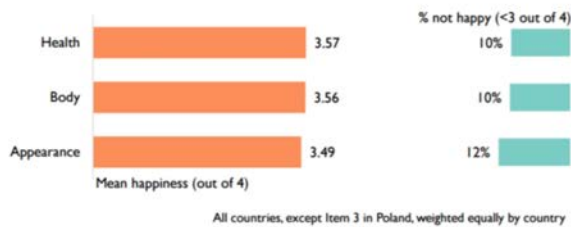
- 동네에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등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한국은 최하위권임.
- 하지만 동네사람들, 의사선생님 태도, 밖에서 노는 장소, 동네 전반에 대한 행복감은 대부분 16개국 평균 수준임.

19

II-7. Self



□ Satisfaction questions about self



문24. 다음의 것들로 인해 얼마나 행복을 느끼나요?



	1	2	3	4	5
(1) 내가 가진 자유	1	2	3	4	5
(2) 나의 건강	1	2	3	4	5
(3) 나의 의도	1	2	3	4	5
(4) 나의 몸	1	2	3	4	5
(5) 자유 시간에 하는 일	1	2	3	4	5
(6) 어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정도	1	2	3	4	5
(7) 나의 안전	1	2	3	4	5
(8) 전체적인 나의 인생	1	2	3	4	5

20

II-7. Self



□ Summary rankings by country for each question

	Health	Appearance	Body
Algeria*	12	5	9
Colombia*	1	2	1
Estonia	15	11	13
Ethiopia	14	12	14
Germany	11	9	11
Israel	6	4	5
Malta	7	7	10
Nepal	16	14	16
Norway	9	8	8
Poland*	5	na	4
Romania	2	1	2
SAfrica*	13	10	7
S Korea	10	15	15
Spain*	4	3	3
Turkey*	3	6	6
UK*	8	13	12

All countries (question about appearance not asked in Poland)

- 한국 아동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느끼는 행복감은 16개국 평균 수준이나, 자신의 몸이나 외모에 대한 행복감은 네팔과 더불어 최하위 수준임.

21

II-8. Time Use



□ Frequency questions about time with family

	Not at all	Once or twice	Most days	Every day
Talking together	4%	12%	22%	62%
Having fun together	5%	15%	30%	49%
Learning together	9%	15%	25%	52%

문8. 지난 한 주 동안 가족들과 아래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나요?	전혀 하지 않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거의 매일	1주일에 매일	모르겠음
(1) 함께 이야기하기	1	2	3	4	5
(2) 함께 즐겁게 놀기	1	2	3	4	5
(3) 함께 공부하거나 배우기	1	2	3	4	5
(4) 함께 저녁식사 먹기	1	2	3	4	5

□ Frequency questions about time with friends

	Not at all	Once or twice	Most days	Every day
Talking together	8%	17%	28%	48%
Having fun together	7%	15%	26%	51%
Meeting to study	41%	20%	16%	23%

문14. 지난 한 주 동안 친구들과 학교 밖에서 다음의 것들을 얼마나 자주 했나요?	전혀	1주일에 1번-2번	1주일에 대부분	1주일에 매일	모르겠음
(1) 함께 이야기하기	1	2	3	4	5
(2) 함께 재밌게 놀기	1	2	3	4	5
(3) 함께 공부하기 (과외, 학원 등은 제외)	1	2	3	4	5

22

II-8. Time 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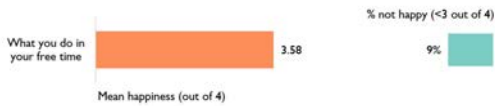
□ General time use questions

	Rarely or never	Less than once a week	Once or twice a week	Every day or almost
Taking classes outside school time	29%	10%	28%	33%
Reading for fun	17%	11%	23%	50%
Helping with housework	9%	9%	25%	56%
Doing homework	4%	5%	14%	77%
Watching TV	9%	7%	20%	64%
Playing sports or doing exercise	12%	9%	25%	54%
Using a computer	26%	12%	24%	38%

문23. 학교 밖에서,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활동을	전혀	1주에 한번 미만	1주일에 1-2번	매일하거나 거의 매일	모르겠음
(1)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른 과목을 방과 후나 주말에 배우기 (음악, 운동, 춤, 외국어 등)	1	2	3	4	5
(2) 재미를 위한 책 읽기(학교 과제 제외)	1	2	3	4	5
(3) 집안일 돕기	1	2	3	4	5
(4) 숙제하기	1	2	3	4	5
(5) TV 보기	1	2	3	4	5
(6) 운동하기	1	2	3	4	5
(7) 컴퓨터 하기	1	2	3	4	5

□ Satisfaction questions about activities in free time



문24. 다음의 것들로 인해 얼마나 행복을 느끼나요?

	1	2	3	4	5
(5) 자유 시간에 하는 일	1	2	3	4	5

II-8. Time Use



□ Rankings of frequencies of activities with family and friends by country

	Activities with family			Activities with friends		
	Talking together	Having fun together	Learning together	Talking together	Having fun together	Studying together
Algeria*	5	3	2	2	6	2
Colombia*	14	6	7	8	8	3
Estonia	9	12	9	13	15	10
Ethiopia	15	15	16	15	14	7
Germany	2	8	15	10	11	16
Israel	10	9	11	3	5	9
Malta	7	1	6	6	2	12
Nepal	12	14	10	16	16	5
Norway	3	11	12	12	10	15
Poland*	8	13	5	5	7	6
Romania	1	5	3	4	4	8
S Africa*	6	2	1	1	1	1
S Korea	16	16	14	7	12	11
Spain*	4	7	8	14	13	14
Turkey	13	4	4	11	3	4
UK*	11	10	13	9	9	13

All countries

•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 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은 16개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속하였음.

II-8. Time Use



Rankings of frequencies of each general activity by country

	Classes	Reading for fun	Help house	Home work	TV	Sports/ Exercise	Using computer
Algeria*	2	6	2	11	10	13	8
Colombia*	6	10	6	10	1	3	3
Estonia	1	15	10	1	8	6	5
Ethiopia	16	16	5	15	16	16	16
Germany	5	11	15	7	12	7	13
Israel	12	12	9	8	5	4	2
Malta	7	2	11	3	6	14	1
Nepal	15	9	4	14	15	15	15
Norway	9	14	13	5	9	9	12
Poland*	10	8	3	2	3	1	7
Romania	11	1	1	4	2	2	4
SAfrica*	13	3	8	12	11	11	9
S Korea	3	13	16	13	14	12	14
Spain*	4	7	7	9	4	5	10
Turkey	8	4	12	6	13	8	11
UK*	14	5	14	16	7	10	6

All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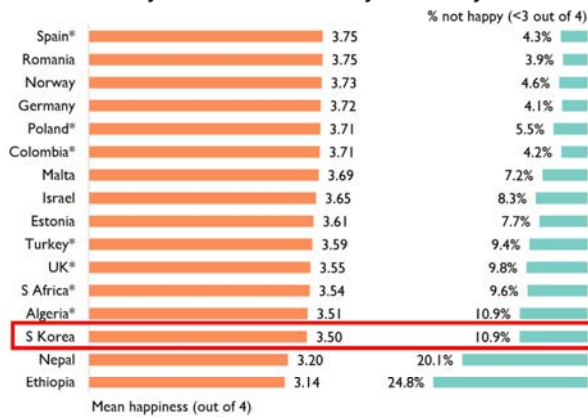
“일반적인 활동”과 관련된 지표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은 방과후 수업(음악, 춤, 외국어 등)만 상위권에 위치하고, 나머지 지표들은 최하위권에 위치하였음.

25

II-8. Time Use



Level of satisfaction with 'what you do in your free time' by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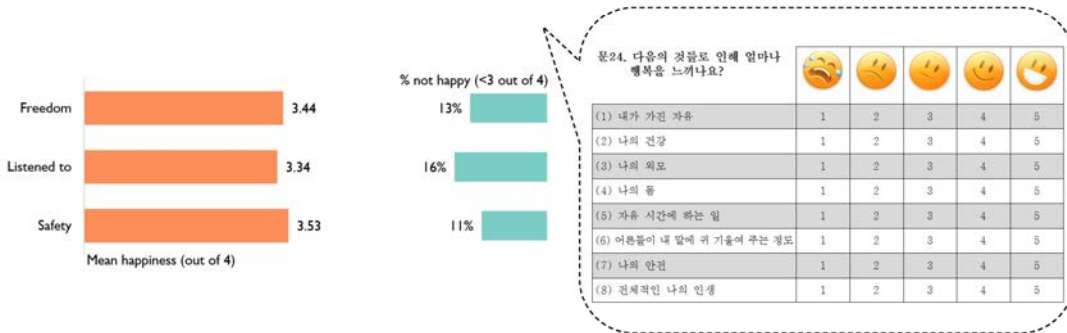
“자유시간에 하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서 우리나라 아동들은 16개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속하였음

26

II-9. Other Aspects of Life



□ Satisfaction questions about other aspects of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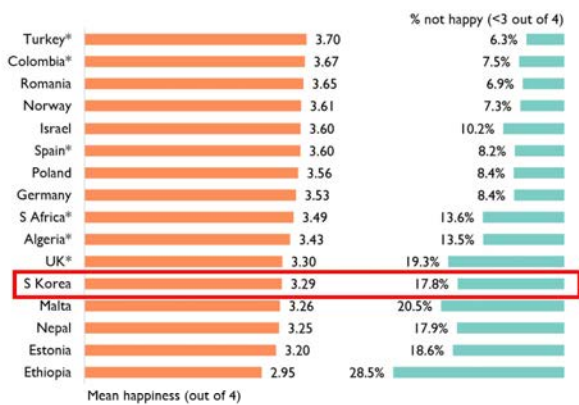


27

II-9. Other Aspects of Life



□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freedom you have' by country



• “내가 가진 자유”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우리나라 아동들은 16개국 중에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28

II-9. Other Aspects of Life



□ Level of satisfaction with 'how you are listened to by adults in general' by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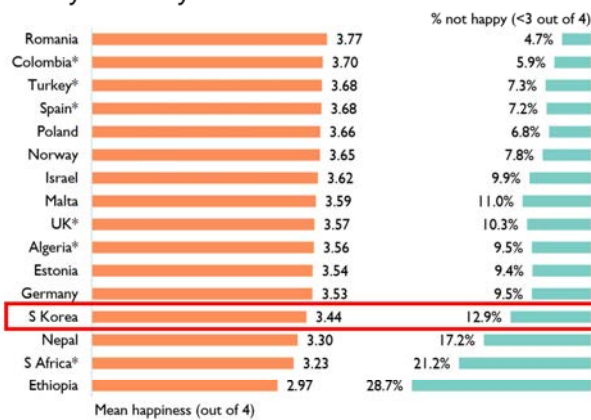


• “어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우리나라 아동들은 16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II-9. Other Aspects of Life



□ Level of satisfaction with 'how safe you feel' by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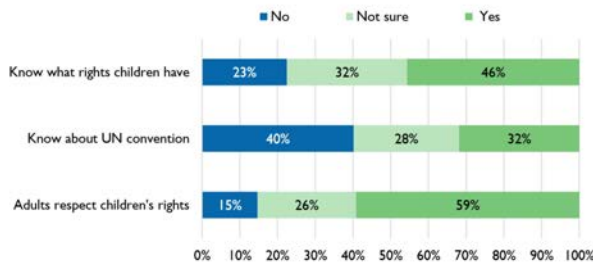


• “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아동들은 16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II-10. Children's Rights



□ Questions about children's rights



문32.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주세요.

	아니오	확실하지 않음	예
(1) 나는 어린이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안다	1	2	3
(2) 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봤다	1	2	3
(3) 우리나라 어른들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1	2	3

31

II-10. Children's Rights



□ Summary-Country ranking for each of the children's rights questions



• “아동권리”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32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 요인

김선숙_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 요인

김선숙_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연구의 배경

- ISCWEB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 연령이 증가할 수록 행복도가 감소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그 감소폭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행복도 감소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자유시간의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있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러한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운 만 8세 아동조차 한국 아동들은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 행복도가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만 8세 아동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다음과 연구문제를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연구문제 1. 만 8세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영향요인을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만 8세 아동의 행복요인을 탐색하고자 함.

연구문제 2. 만 8세 아동의 행복요인은 만 12세 아동과 차이가 있는가?

- 만 8세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만 12세 아동의 행복요인들과 비교하여 개인/가족/학교/지역사회 요인의 각 차원이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

II. 이론적 배경

- 생태체계적 관점(Bronfenbrenner, 1986; Shinn & Toohey, 2003; Duncan & Raudenbush, 1999)을 적용하여 아동의 행복을 살펴봄.
-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별 환경의 특성을 단편적으로 보기 보다는 전체 체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개인관련 변인**
 - 인구통계학적 배경과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이러한 변수들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에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음.
 - 이에 인구학적 변인은 성별만 포함시키고, 한국의 8세 아동들과 12세 아동들의 주관적 행복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인 자신이 가진 자유에 대한 만족도, 외모만족도 및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개인관련 변인으로 포함하였음.
- **학교 및 또래 변인**
 - 친구와의 관계 :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한국 초등학생들의 행복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이보람, 박혜준, 2011; 이재경, 조혜정, 2012; Yoo & Choi, 2016), 급우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주관적 행복도는 증가함(Konu et al., 2002). 또한 또래와 함께하는 활동빈도가 많을수록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아동의 행복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Lee & Yoo, 2015).
 - 교사와의 관계 : 교사는 학교환경을 이루는 주요 요소로 친구와의 관계 뿐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도 아동행복에 영향을 미침(Konu et al., 2002).
 - 주관적 학업성취도: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서구와 달리 성적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과의 관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유민상, 2016). 실제 한국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이보람, 박혜준, 2011; Yoo & Choi, 2016)
- **지역사회 변인**
 - 지역사회 수준에서 아동의 주관적 행복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특성과 안전이 아동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라 보고하고 있음(Coulton & Korbin, 2007; McDonelle, 2007).

- 특히 지역사회의 놀이장소와 지역사회 안전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아동의 주관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Lee & Yoo, 2015)

Ⅲ. 연구방법

1.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 아동의 행복

- 아동의 행복은 Huebner(1991)의 학생생활만족도 척도(SLSS) 총 7개 문항 중 4개의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
- 구체적으로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내 인생은 딱 만족스럽다’,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를 8세는 5점 척도로, 12세는 0=매우 반대 ~ 10=매우 찬성의 11점 척도로 측정
- 연령대 별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나 측정된 척도가 상이하어 원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점수(Z score)로 변환하여 사용

2) 아동개인 관련 요인

- 성별 : 남성=1, 여성=0
- 내가 가진 자유/외모/여가시간에 대한 만족
 - 아동 개인과 관련된 변수를 성별 외에 내가 가진 자유에 대한 만족, 외모에 대한 만족, 그리고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을 통해 측정
 - 8세는 5점 척도로 측정, 12세는 11점 척도로 측정하여, 각 항목의 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사용.

3) 가족관련 요인

- 주거환경
 - ‘나는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낀다’와 ‘나는 집에서 조용하게 공부할 곳이 있다’의 두 항목을 통하여 5점척도로 측정
- 부모와의 관계

-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잘 들어주시고,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우리 가족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공평하게 대해 주신다’의 세 항목을 5점척도로 측정

○ 물질적 결핍

- 아동이 소유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 측정
- 8세 : ‘학교에 입고 갈 수 있는 좋은 상태의 옷’,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인터넷 접속하기’, ‘가족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소유여부 (0=없음, 1=있음)
- 12세 : 8세 아동에 대해 소유여부를 물은 항목 이외에 ‘휴대폰’, ‘자신의 방’, ‘재미로 읽을 수 있는 책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나의 물건’의 소유여부를 추가로 질문
- 질문한 항목 중 아동이 소유하고 있는 항목의 합산을 측정하여 물질적 결핍정도를 측정하였고,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사용

4) 학교관련 요인

○ 친구와의 관계

- ‘내 친구들은 대체로 나에게 잘 대해준다’와 ‘나는 친구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의 두 항목을 통해 5점 척도로 측정

○ 교사와의 관계

- ‘선생님은 내 말을 잘 들어주시고,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선생님은 나를 공평하게 대해 주신다’의 두 항목을 통해 5점 척도로 측정

- 학업성취도: 나의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 → 나의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로 ‘매우 못함’, ‘보통 이하’, ‘보통’, ‘보통 이상’, ‘아주 잘함’과 같이 5점 척도로 측정

5) 지역사회관련 요인

- ‘우리 동네에는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다’와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의 두 문항을 통해 각 5점 척도로 측정
- 즉, 아동이 실제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공간이 있는지와 심리적으로 안전한 동네라고 느끼는지에 대해 측정

3. 분석방법

-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태체계이론에 따라 개인관련 요인, 가족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 그리고 지역사회 관련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영향요인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음.
- 이를 위하여 STATA를 이용하여 각 체계요인별 모델별로 회귀모형의 연령대별 차이와 회귀계수의 연령별 차이를 Chow test(Chow, 1960) 및 Gujarati(1970)가 제안한 상호작용항 검증 방법을 활용하였음.

IV. 연구결과

1. 아동행복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령별 차이

1) 개별 요인 모형 분석 결과(표 1)

아동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연령대별 분석을 위해 아동 개인관련 요인, 가족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 지역사회관련 요인 별로 모형을 구성하고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음(표 1).

아동 개인관련 요인에서는 8세와 12세 아동 모두 ‘내가 가진 자유’, ‘외모’,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이 아동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Chow test 결과 아동 개인관련 요인 모형은 연령대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Chow statistics=644.40, p-value=.000), 특히 ‘내가 가진 자유’와 ‘외모’가 12세 아동에 비해 8세 아동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관련 요인에서는 전체집단에서는 주거환경의 질,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물질적 결핍이 모두 아동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Chow test 결과 가족관련 요인 모형은 연령대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Chow statistics=305.17, p-value=.000), 특히 주거환경이 12세 아동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집에서 조용하게 공부할 곳이 있는 아동일수록 더 행복하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영향은 8세에도 이미 유의미하였으나 아동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음.

학교관련 요인에서는 연령대에 관계없이 친구와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

계의 질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남. Chow test 결과를 통해 학교관련 요인 모형은 연령대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Chow statistics=379.34, p-value=.000), 학업성취도에 대한 만족도가 12세 아동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한국의 아동은 8세에 이미 자신의 성적에 대해 만족할수록 더 행복하다고 느끼며, 이러한 영향은 12세 아동에게 더 크게 나타났음.

지역사회관련 요인에서는 연령대에 관계없이 전체아동에 대해서 유의미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음. 그러나 Chow test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관련 요인 모형은 연령대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Chow statistics=54.40, p-value=.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회귀계수의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즉, 아동이 자신이 사는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12세에 비해 8세 아동의 행복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아동행복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연령별, 관련요인별

	전체		8세		12세		
	B	SE	B	SE	B	SE	
Child	AgeGroup‡	-.023***	.005				
	Gender	.021	.022	.029	.034	-.024	.028
	Satisfied Freedom‡	.144***	.008	.270***	.020	.125***	.009
	Satisfied Appearance†	.302***	.009	.355***	.019	.295***	.010
	Satisfied Freetime	.259**	.014	.237***	.021	.240***	.018
	Constant	.021	.067	-.157**	.054	-.220***	.045
	R ²	.529		.378		.615	
F	1119.62***		363.80***		1034.06***		
Chow test			F(9, 4979) = 644.40***				
Family	AgeGroup‡	-.124***	.006				
	Housing *	.106***	.009	.087***	.012	.129***	.015
	Parent relation	.158***	.006	.150***	.008	.163***	.009
	N_Deprivation	-.057*	.027	-.107**	.041	-.012	.037
	Constant	-1.366***	.089	-2.193***	.080	-3.025***	.079
	R ²	.313		.246		.293	
F	529.26***		246.25***		334.56***		
Chow test			F(7, 4680) = 305.17***				

	전체		8세		12세	
	B	SE	B	SE	B	SE
AgeGroup ‡	-.076***	.006				
School						
Friend Relation	.170***	.007	.169***	.010	.180***	.010
Teacher Relation *	.125***	.007	.108***	.010	.140***	.009
Satisfied School Mark ‡	.297***	.012	.213***	.019	.356***	.016
Constant	-1.333***	.088	-1.856***	.082	-2.348***	.081
R ²	.391		.305		.402	
F	784.05***		342.40***		570.33***	
Chow test	F(7, 4874) = 461.08***					
AgeGroup ‡	-.132***	.007				
Community						
Area Places to Play	.002	.001	.001	.001	.001	.001
Area Safe Walk	-.001	.001	-.003*	.001	-.0007	.001
Constant	.855***	.080	-.195***	.023	-.743***	.024
R ²	.055		.002		.0006	
F	97.37***		3.27***		.82	
Chow test	F(5, 4983) = 59.01***					

*p<.05, **p<.01, ***p<.001

‡: 집단 간 회귀계수 비교 결과 연령간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 (기준집단 : 8세)

†: 집단 간 회귀계수 비교 결과 연령간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

* : 집단 간 회귀계수 비교 결과 연령간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

2) 통합모형 분석결과 <표 2>

- 각 요인들을 통합한 전체 모형의 연령대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Chow statistics=224.93, p-value=.000).
- 개별 요인 모형에서는 내가 가진 자유, 외모, 주거환경, 학업성취도에 대한 만족에서 연령간 회귀계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통합모형에서는 내가 가진 자유, 친구관계,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대한 만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의 차이가 나타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가진 자유는 8세 아동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친구관계와 학업성취도에 대한 만족은 12세 아동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즉, 8세 아동의 경우 아동자신과 관련된 요인이 아동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12세 아동의 경우는 학교와 관련된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족관련요인 모형에서는 물질적 결핍이 8세아동의 행복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12세 아동의 행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통합 모형에서도 연령대에서 모두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물질적 결핍은 아동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역사회관련 요인 모형에서는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있으나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개인, 가족, 학교관련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사회 관련 요인을 살펴본 통합모형에서는 지역사회 관련 요인이 아동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2〉 아동행복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연령별, 전체요인

		전체(N=6,813)		8세(N=2,213)		12세(N=2,390)	
		B	SE	B	SE	B	SE
	AgeGroup†	-.039***	.005				
	Gender	-.049*	.021	-.053	.032	-.056*	.028
child	Satisfied Freedom‡	.115***	.008	.204***	.020	.097***	.009
	Satisfied Appearance	.176***	.010	.162***	.021	.202***	.012
	Satisfied Freetime	.191***	.014	.163***	.020	.203***	.018
family	Housing	.030***	.007	.027*	.010	.039***	.011
	Parent relation	.057***	.005	.061***	.007	.049***	.007
	N_Deprivation	.0006	.021	-.037	.034	.013	.026
school	Friend Relation‡	.063***	.006	.091***	.010	.021*	.009
	Teacher Relation	.037***	.006	.041***	.010	.030***	.008
	Satisfied School Mark **	.120***	.011	.082***	.018	.132***	.014
community	Area Places to Play	.0003	.0007	.0005	.001	.0001	.0008
	Area Safe Walk	-.00009	.0007	-.0004	.001	-.0001	.0008
	Constant	-1.068***	.086	-1.619***	.108	-1.175***	.099
R ²		.593		.471		.652	
F		514.27***		163.49***		371.68***	
Chow test				F(25, 4577) = 273.87***			

*p<.05, **p<.01, ***p<.001

‡: 집단 간 회귀계수 비교 결과 연령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 (기준집단 : 8세)

V. 결론 및 제언

- 아동자신과 관련된 요인은 12세 아동보다 8세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즉, 8세부터 타인과의 경쟁 또는 비교를 통해 자기 스스로의 가치 등을 판단하며, 이것은 다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게 됨. 이러한 영향은 아직 12세 아동보다 생활반경이 좁은 8세 아동에서 더 크게 나타남.
- 가족관련 요인 중 특히 주거환경의 경우 12세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전하게 느껴지는 집, 혹은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집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더 행복감을 느낌.
- 학교관련 요인은 12세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특히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에서 연령대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지역사회관련 요인은 전체적으로 8세 아동 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위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행복감 향상을 위해서는 연령대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 8세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는 저학년 아동의 여가 및 놀이환경 변화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아동들이 덜 경쟁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여가 및 놀이를 즐기고 그 과정에서 사회화 등 발달 단계의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학업성취도에 대한 만족 등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 확인.
- 아동가구 대상 주거지원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 즉, 아동가구에 안전하고, 아동의 독립된 공간이 있는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 행복감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아동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기반이 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구체적인 인적, 물적 투자가 필요함.

참고문헌

- 유민상(2016).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보람, 박혜준 (2011)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인 삶의 질 양상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4권 제3호, 129-152
- 이재경, 조혜정 (2012)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0권, 41-71
- A. Konu, E. Alanen, T. Lintonen and M. Rimpela (2002) Factor structure of the School Well-being Model, *Health Education Research : Theory & Practice*, Vol. 17(6), 732-742
- Bronfenbrenner, Urie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2(6), 723-742
- Chow, G. C. (1960) Tests of Equality Between Sets of Coefficients in Two Linear Regressions, *Econometrica*, Vol. 28, No. 3, 591-605
- Claudia J. Coulton, Jill E. Korbin (2007) Indicators child well-being through a neighborhood le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84(3), 349-361
- Greg. J. Duncan & Stephen W. Raudenbuch (2010), Assessing the effects of context in studies of child and youth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34(1), 29-41
- Gujarati, D. (1970) Use of Dummy Variables in Testing for Equality between Sets of Coefficients in Two Linear Regressions, *The American Statistician*, Vol. 24, No. 1, 51-52
- Huebner (1991). Initial development of the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2(3), 231-240.

- Lee, B. J. & Yoo, M. S. (2015). Family, school, and community correlates of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Child Indicators Research*, 8(1),151-175.
- McDonelle, J. R. (2007).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parenting, and children's safe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3(1), 177-199.
- Shinn, M., & Toohey, S. M. (2003). Community context of human welfar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1), 427-459.
- Yoo, J. P. & Choi, C. (2016). How do family economic contexts affect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 study of South Korea. *Child Indicators Research*, 9:949, doi: 10.1007/s12187-015-9358-7.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요인



김 선 속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시: 2017년 5월 2일 오후 2시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터칠드런

목 차

- I 연구배경 및 연구문제
-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IV 결론



I 연구배경



- ISCWeB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감소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그 감소폭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행복도 감소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자유시간의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러한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운 8세 아동조차 한국 아동들은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 행복도가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한국 8세 아동들의 행복 영향요인을 알아보하고자 함

3

I 연구문제



- **Q1) 8세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영향요인을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8세 아동의 행복 요인을 탐색하고자 함
- **Q2) 8세 아동의 행복요인은 12세 아동과 차이가 있는가?**
 - 8세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12세 아동의 행복요인들과 비교하여 개인/가족/학교/지역사회 요인의 각 차원이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

4

Ⅱ 이론적 배경 ①



□ 아동을 둘러싼 주요한 환경적 맥락으로 가족,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김연화·김선숙, 2008), 생태체계 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인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유기체 변인

아동의 외모만족도, 자유시간에 대한 만족도

미시체계 요인

▷ 가족변인: 주거환경, 물질적 결핍, 부모와의 관계

▷ 학교 및 또래 변인: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주관적 학업성취도

외체계 요인

▷ 지역사회 변인: 즐거운 장소, 안전한 지역사회

5

Ⅱ 이론적 배경 ②



□ 유기체 변인

- 인구통계학적 배경과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이러한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Proctor, Linley, & Meltby, 2009; 유민상, 2016에서 재인용).
- 이에 인구학적 변인은 성별만 통제변수로 포함하고, 한국의 8세 아동들과 12세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인 외모만족도 및 자유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유기체 변인으로 포함

6

Ⅱ 이론적 배경 ③



□ 가족 변인

- **가족 내 경제적 환경(economic context):**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소득은 아동의 주관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물질적 박탈(material deprivation)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Main, 2014; Yoo & Choi, 2016)에 따라 물질적 결핍을 영향요인으로 포함
- **주거환경:** 가정 내 안전 등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Lee & Yoo, 2015).
- **부모와의 관계:** 아동들의 행복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은 가족으로,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행복도는 높으며(이재경·조혜정, 2012), 가족과 활동을 많이 할수록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아동의 행복도는 높음(Lee & Yoo, 2015).

7

Ⅱ 이론적 배경 ④



□ 학교 및 또래 변인

- **친구와의 관계:**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한국 초등학생들의 행복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이보람·박혜준, 2011; 이재경·조혜정, 2012; Yoo & Choi, 2015), 급우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주관적 행복도는 증가함(Konu et al., 2002). 또한 또래와 함께하는 활동빈도가 많을수록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아동의 행복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Lee & Yoo, 2015).
- **교사와의 관계:** 교사는 학교환경을 이루는 주요 요소로 친구와의 관계 뿐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도 아동행복에 영향을 미침(Konu et al., 2002).
- **주관적 학업성취도:**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서구와 달리 성적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과의 관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Yoo, 2016). 실제 한국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이보람·박혜준, 2011; Yoo & Choi, 2016).

8

Ⅱ 이론적 배경 ⑤



□ 지역사회 변인

- 지역사회 수준에서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특성과 안전이 아동들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 나타남(Coulton & Korbin, 2007; McDonelle, 2007).
- 특히 지역사회의 놀이장소와 지역사회 안전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Lee & Yoo, 2015).

9

Ⅱ 연구방법 : 변수의 측정 ①



□ 종속변수 : 아동의 행복

- Huebner(1991)의 학생생활만족도 척도(SLSS) 총 7개 문항 중 4개의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
 - ✓ My life is going well,
 - ✓ My life is just right,
 - ✓ I have a good life,
 - ✓ I have what I want in life
- 연령대 별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나 측정된 척도가 상이하
여 표준점수(Z score)로 변환하여 사용
- Cronbach's α = .908(8세), .958(12세)

10

II 연구방법 : 변수의 측정 ②



□ 유기체요인 : 아동개인 관련 요인

- 성별 (여=0, 남=1)
-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freedom you have?
 the way that you look?
 what you do in your free time?



11

II 연구방법 : 변수의 측정 ③



□ 가족관련 요인

- 주거환경
 - ✓ I feel safe at home
 - ✓ I have quiet place to study at home
- 부모와의 관계
 - ✓ my parents listen to me and take what I say into account
 - ✓ We have a good time together in my family
 - ✓ My parents treat me fairly
- 물질적 결핍
 - ✓ 8세 (옷, 컴퓨터, 인터넷, 자동차 등의 소유여부 → 합산)
 - ✓ 12세 (옷, 컴퓨터, 인터넷, 자동차, 휴대폰, 자신의 방, 책, 음악감상을 위한 물건의 소유여부 → 합산)
 - ✓ 표준점수(Z Score)로 변환하여 사용

12

Ⅱ 연구방법 : 변수의 측정 ④



□ 학교관련 요인

- 친구와의 관계
 - ✓ My friends are usually nice to me
 - ✓ I have enough friends
- 교사와의 관계
 - ✓ My teachers listen to me and take what I say into account
 - ✓ My teachers treat me fairly
- 학업성취도 : satisfied with school marks

13

Ⅱ 연구방법 : 변수의 측정 ⑤



□ 지역사회관련 요인

- In my area there are enough places to play or to have a good time
- I feel safe when I walk in the area I live in



14

II 연구방법 : 분석방법



- STATA를 이용하여 각 체계요인별 모델별 회귀모형의 연령대별 차이와 회귀계수의 연령별 차이를 Chow Test(Chow, 1960) 및 상호작용항 검증방법(Gujarati, 1970)활용.

$$Chow\ statistic = \frac{ESS_c - (ESS_1 + ESS_2)}{\kappa} / \frac{ESS_1 + ESS_2}{N_1 + N_2 - 2\kappa}$$

- 위 방법을 통해 두 집단의 회귀모형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
- 집단 간의 특정 회귀계수의 차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항 검증을 사용.

15

III 연구결과: 아동행복 영향요인(연령별, 관련요인별) ①



		전체		8세		12세	
		B	SE	B	SE	B	SE
Child	AgeGroup***	-.023***	.005				
	Gender	.021	.022	.029	.034	-.024	.028
	Satisfied Freedom***	.144***	.008	.270***	.020	.125***	.009
	Satisfied Appearance**	.302***	.009	.355***	.019	.295***	.010
	Satisfied Freetime	.259**	.014	.237***	.021	.240***	.018
	Constant	.021***	.067	-.157***	.054	-.220***	.045
R2		.529		.378		.615	
F		1119.62***		363.80***		1034.06***	
Chow test		F(9, 4979) = 644.40***					

- 내가 가진 자유, 외모에 대한 만족도 회귀계수의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8세에 이미 외모 등의 요인이 아동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16

Ⅲ 연구결과: 아동행복 영향요인(연령별, 관련요인별) ②

		전체		8세		12세	
		B	SE	B	SE	B	SE
Family	AgeGroup	-.124***	.006				
	Housing*	.106***	.009	.087***	.012	.129***	.015
	Parent relation	.158***	.006	.150***	.008	.163***	.009
	N_Deprivation	-.057*	.027	-.107**	.041	-.012	.037
	Constant	-1.366***	.089	-2.193***	.080	-3.025***	.079
R2		.313		.246		.293	
F		529.26***		246.25***		334.56***	
Chow test		F(7, 4680) = 305.17***					

- 아동의 주거환경 회귀계수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즉,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 수록 주거환경이 아동의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17

Ⅲ 연구결과: 아동행복 영향요인(연령별, 관련요인별) ③

		전체		8세		12세	
		B	SE	B	SE	B	SE
School	AgeGroup***	-.076***	.006				
	Friend Relation	.170***	.007	.169***	.010	.180***	.010
	Teacher Relation*	.125***	.007	.108***	.010	.140***	.009
	Satisfied School Mark***	.297***	.012	.213***	.019	.356***	.016
	Constant	-1.333***	.088	-1.856***	.082	-2.348***	.081
R2		.391		.305		.402	
F		784.05***		342.40***		570.33***	
Chow test		F(7, 4874) = 461.08***					

- 학교관련 요인(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은 12세 아동의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미 8세에도 학업성취도는 아동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18

Ⅲ 연구결과: 아동행복 영향요인(연령별, 관련요인별) ④

		전체		8세		12세	
		B	SE	B	SE	B	SE
Community	AgeGroup***	-.132***	.007				
	Area Places to Play	.002	.001	.001	.001	.001	.001
	Area Safe Walk	-.001	.001	-.003*	.001	-.0007	.001
	Constant	.855***	.080	-.195***	.023	-.743***	.024
R2		.055		.002		.0006	
F		97.37***		3.27***		.82	
Chow test		F(5, 4983) = 59.01***					

□ 지역사회관련 요인의 회귀계수가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변수 별로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19

Ⅲ 연구결과: 아동행복 영향요인(연령별, 전체요인) ①

		전체(N=6,813)		8세(N=2,213)		12세(N=2,390)	
		B	SE	B	SE	B	SE
child	AgeGroup**	-.039***	.005				
	Gender	-.049*	.021	-.053	.032	-.056*	.028
	Satisfied Freedom***	.115***	.008	.204***	.020	.097***	.009
	Satisfied Appearance	.176***	.010	.162***	.021	.202***	.012
	Satisfied Freetime	.191***	.014	.163***	.020	.203***	.018
family	Housing	.030***	.007	.027*	.010	.039***	.011
	Parent relation	.057***	.005	.061***	.007	.049***	.007
	N_Deprivation	.0006	.021	-.037	.034	.013	.026

20



Ⅲ 연구결과: 아동행복 영향요인(연령별, 전체요인) ②

		전체(N=6,813)		8세(N=2,213)		12세(N=2,390)	
		B	SE	B	SE	B	SE
school	Friend Relation***	.063***	.006	.091***	.010	.021*	.009
	Teacher Relation	.037***	.006	.041***	.010	.030***	.008
	Satisfied School Mark*	.120***	.011	.082***	.018	.132***	.014
community	Area Places to Play	.0003	.0007	.0005	.001	.0001	.0008
	Area Safe Walk	-.00009	.0007	-.0004	.001	-.0001	.0008
Constant		-1.068***	.086	-1.619***	.108	-1.175***	.099
R2		.593		.471		.652	
F		514.27***		163.49***		371.68***	
Chow test		F(25, 4577) = 273.87***					

21



Ⅲ 연구결과: 아동행복 영향요인(연령별, 전체요인) ③

- 각 요인들을 통합한 전체 모형의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즉,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패턴이 8세와 12세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음.
- 특히, 아동 개인과 관련된 요인과 학교관련 요인에서 유의미한 요인들이 발견됨.
- 즉, 내가 가진 자유에 대한 만족과 친구관계는 8세 아동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학교성적에 대한 는 12세 아동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22

IV 결론



- 아동 자신과 관련된 요인으로 사용한 성별을 제외한 내가 가진 자유, 외모,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 모두 12세 뿐 아니라 8세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아동 자신과 관련된 요인의 영향력은 12세 아동에 비해 8세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내가 가진 자유와 외모의 경우 8세 아동 집단에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8세 아동의 경우 12세 아동에 비해 아동 자신과 관련된 요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23

IV 결론



-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전체집단에서는 주거환경, 부모와의 관계, 물질적 결핍이 모두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물질적 결핍의 경우 8세에는 유의미하였으나, 12세에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 주거환경의 경우 12세 아동집단에서 주관적 행복감에 보다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 수록 안전하게 느껴지는 집,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집이 있다고 생각할 수록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음.

24

IV 결론



- 학교관련 요인으로는 친구 또는 교사와의 관계,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8세에 비해 12세 집단에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관련 요인은 전체적으로는 8세 아동 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음.

25

IV 결론



- 아동의 행복감 향상을 위해서는 연령대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구체적 사업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 8세 아동의 여가 및 놀이환경
 - ✓ 아동가구에 안전하고, 아동의 독립된 공간이 있는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아동가구대상 주거지원정책
 - ✓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을 위한 학교 내 학생복지차원의 노력이 필요
 - ✓ 아동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 특히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기반이 되는 환경(가정/학교/지역사회) 조성보다 구체적인 인적, 물적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주거환경, 학업성취도에 대한 만족)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26



감사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더 빨리 감소할까?

: 국제적 시각에서 본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의 행복감 변화 비교연구

이봉주_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민상_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더 빨리 감소할까?

: 국제적 시각에서 본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의 행복감 변화 비교연구

이봉주_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민상_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 연구 개요

-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 시각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행복도 변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임.
 - ISCWEB 조사 결과의 공통된 특징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감소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는 것. 행복도 순위에 관계 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경향 발견됨.
 - 하지만 이러한 감소 경향에도 국가 별로 차이가 존재. Nepal과 Ethiopia와 같이 행복감이 상승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감소되는 쪽에서 차이를 보임. 특히 한국은 행복도의 감소폭이 큰 편임. 초3의 행복도가 하위권이었다가 중1의 행복도가 최하위권으로 변화.
- 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더 낮을 뿐만 아니라, 더 빨리 감소되는가?
 - 초3과 중1의 행복도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 첫째는 사춘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소임.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의 시기는 사춘기로 진입하는 시기로 선행 연구들에서도 아동기의 연령 증가는 행복도 감소 요인이라 지적하고 있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각 나라 아이들의 행복도 감소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
 - 둘째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임. 아이들을 둘러싼 가족, 학교, 동네의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아이들의 행복도는 변화할 수 있음.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아

이들은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evaluation)가 변화하는 것임. 이는 아이들의 행복도를 각기 다른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방법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이 연구는 국가별 영역별 삶의 만족도(domain-specific life satisfaction)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것이 전반적인 행복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분석할 것임.

2. 이론적 배경: 아동 발달과 사회환경적 변화

-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전반적인 행복도를 분석해보면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 (Park, 2005).
 - 하지만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단일하게 고려할 수는 없음.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의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 (Lee & Yoo, 2015; 유민상, 2016)
 - 따라서 연령 증가에 따른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 삶의 영역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을 것임.
- 아동 주관적 행복의 인지적 측면: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영역별 삶의 만족도
 - 긍정 심리학자들의 노력으로 인간의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일반적으로 주관적 행복감은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측정 가능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 인지적 측면은 전반적 삶의 만족도(global life satisfaction)와 영역별 삶의 만족도(domain-specific life satisfaction)로 구분 가능함. 영역별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비하여 삶의 구체적 영역에 대한 영향을 중요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특성이 있음 (R. A. Cummins, 1996).
 - 아동 삶의 영역별 만족도는 성인과는 다른 아동의 삶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 (Ben-Arieh, Casas, Frønes, & Korbin, 2014; Lee, 2014). 아동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 중 대표적인 것은 PWI-SC(Personal Wellbeing Index-school children)과 MSLSS(Multidimensional Student Life Satisfaction Scale)

등임 (R Cummins & Lau, 2005; Huebner, 1994).

- PWI는 원래 성인을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아동 삶의 중요한 영역을 추가하여 아동용 PWI로 전환한 것임. 물질적 만족, 건강만족, 잘하고 싶은 것에 대한 만족, 대인관계 만족, 안전감 만족, 외부활동 만족, 미래에 대한 만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R Cummins & Lau, 2005).

- MSLSS는 가족, 친구, 학교, 동네, 자신 등 5개 영역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 MSLSS는 40개 문항으로 축약버전인 BMSLSS를 활용하는 하기도 함 (Seligson, Huebner, & Valois, 2003).

○ 영역별 삶의 만족도와 전반적 삶의 만족도,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

- 영역별 삶의 만족도와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 영역별 삶의 만족도는 환경적 측면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기 때문에 영역별 삶의 만족도로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할 경우 사회환경적 영향을 과대평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R. Cummins, 2000).

- 따라서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변화가 주관적 행복감의 변화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영역별 삶의 만족도들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를 확인할 것임.

3. 연구방법

1) 분석방법

○ 아동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연령별, 국가별 비교를 진행하기 위하여 간명한 방법으로 분석.

○ 첫 번째는 국가별 BMSLSS에 대한 기술적 분석임.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국가 간 변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이는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변화하면서 증가하는지 감소되는지를 기술적으로 살펴보는 것임.

○ 두 번째는 국가별 BMSLSS가 전반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는 것임. 영역별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연령과 각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상호작용 항(interaction-term)을 투입하여 연

령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임.

- 이는 연령에 따른 아동 행복도의 감소를 단일 국가 안에서의 특성과 국가 간 특성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2)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16개국의 만 8세와 만 12세 아동임. 16개 국가는 Algeria, Colombia, England, Estonia, Ethiopia, Germany, Israel, Malta, Nepal, Norway, Poland, Romania, S Africa, S Korea, Spain, Turkey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임.¹⁾
- 이 분석자료는 ISCWeB 2nd wave 임. 이 자료는 횡단자료(cross-sectional data)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닌 다른 대상 간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들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음.

3) 분석변수

- 아동 삶의 영역별 만족도(BMSLSS)는 가족생활, 친구관계, 학교생활, 살고 있는 동네, 자기 자신의 5가지 영역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전반적 행복감(overall happiness)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
- 만 8세 아동의 BMSLSS는 5점척도(0점-4점)로 측정되었고, 만 12세 아동은 11점 척도(0점-10점)로 측정되었음. 두 연령의 범주 차이는 Cummins & Lau (2005)가 제안한 범주 일치 방법(percentage of scale maximum)을 사용하여 모두 0점과 10점의 11점 척도로 일치시켰음.²⁾

1) 삶의 영역별 만족도(BMSLSS)는 16개 모든 국가에서 비교가 가능하지만, 전반적 행복감(overall happiness)는 영국과 폴란드에서 측정되지 않아 회귀분석에서 이들 2개 국가는 제외되었음 (영국은 만 12세, 폴란드는 만 8세의 전반적 행복감 변수가 누락됨).

2) Cummins & Lau가 제안한 방식은 $\frac{x - k^{\min}}{k^{\max} - k^{\min}} \times 100$ 임 (x는 원점수, k^{\min} 은 척도범주의 최소값, k^{\max} 는 척도 범주의 최대값). 단, 이 연구에서는 0-100점이 아닌 0-10점으로 범주를 수정 적용하였음.

4. 분석결과

1) 국가별 분석 대상자들의 특성

○ 조사대상자들의 특성

- 이 연구의 전체 조사대상자는 16개 국가의 만 8세와 만 12세 아동 36,708명임.
- 조사대상 국가들 마다 조사인원의 차이가 발생. Korea가 5,029명으로 가장 많고, Malta가 1,744명으로 가장 적게 조사됨.
- BMSLSS의 비교분석에서는 16개 국가 인원이 모두 포함되지만(분석1), 전반적 행복감에 대한 BMSLSS의 회귀분석(분석2)에서는 영국과 폴란드의 인원이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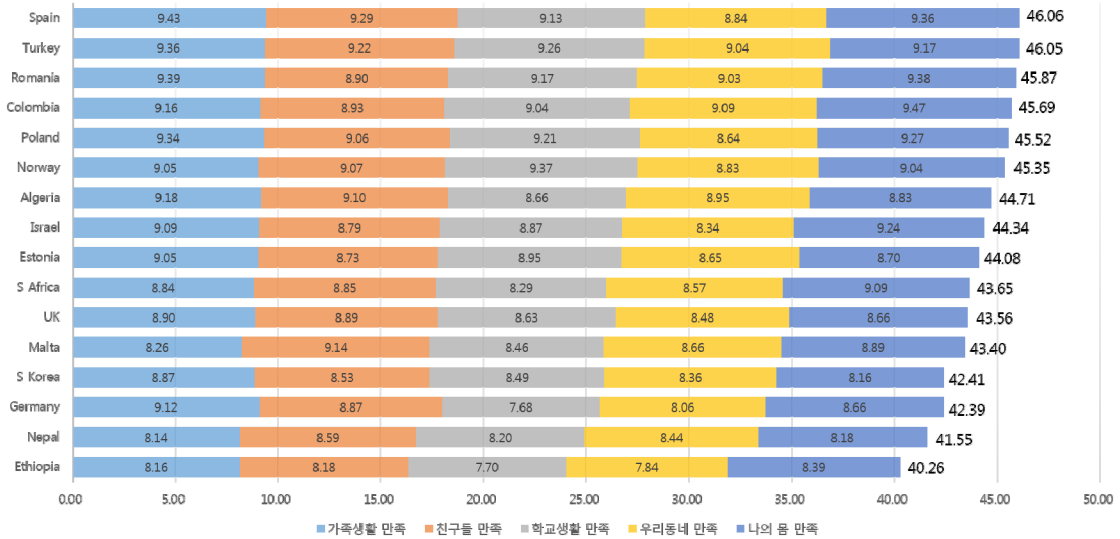
〈표 1〉 국가별 조사대상자들의 특성

	성별		학년		전체
	남자	여자	만 8세	만 12세	
Algeria	1353	1174	1244	1283	2527
Nepal	982	988	975	995	1970
Estonia	1084	1015	1076	1029	2105
Spain	1404	1295	1032	1667	2699
Colombia	915	951	902	975	1877
Turkey	927	1049	959	1018	1977
Ethiopia	961	970	953	980	1933
S Korea	2408	2621	2432	2597	5029
Germany	917	984	1056	852	1908
England	1130	1139	990	1319	2309
Israel	889	910	886	926	1812
Romania	1399	1341	1242	1507	2749
Norway	857	1038	930	974	1904
Poland	1038	988	1021	1017	2038
S Africa	1023	1104	996	1131	2127
Malta	934	800	802	942	1744
전체	18221	18367	17496	19212	36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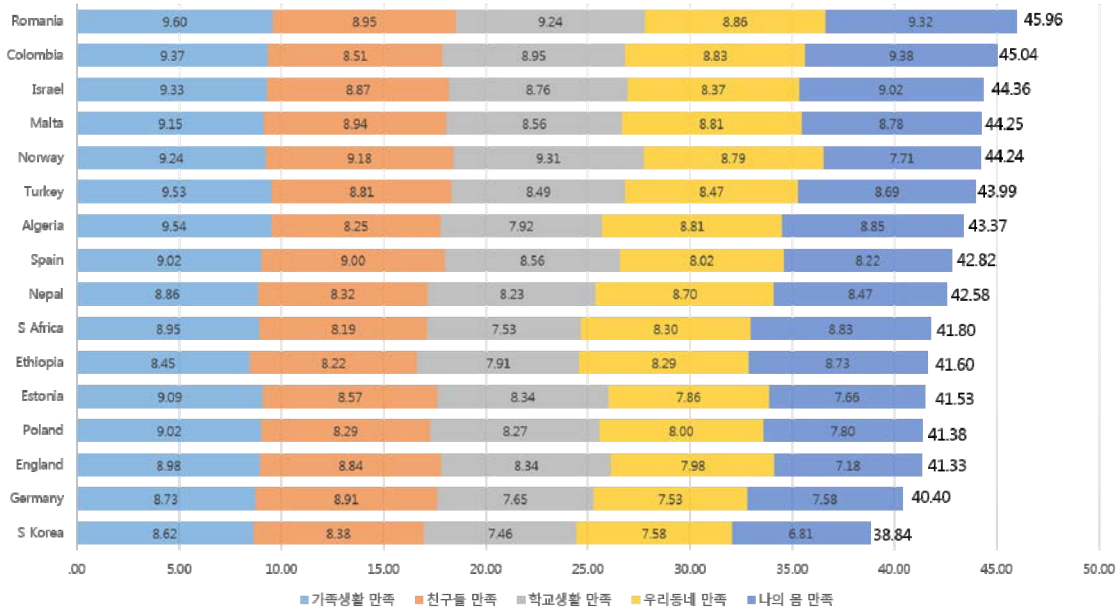
2) 분석1: BMSLSS의 연령별 차이에 대한 국가비교 분석

- BMSLSS의 합산결과는 각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함.

- BMSLSS을 만 8세와 만 12세로 비교해봤을 때 약간의 순위 변동. 한국은 13위에서 16위로 하락.
- 만 8세에 비해 만 12세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족도가 하락하지만, 한국의 감소 폭이 더 큼.



[그림 1] 8세 영역별 삶의 만족도(BMSLSS) 국가비교 결과



[그림 2] 12세 영역별 삶의 만족도(BMSLSS) 국가비교 결과

*Note: 여기서 사용된 BMSLSS은 5개 영역 문항의 총합으로 0점부터 50점까지이며, 보조막대(sub-bar)로 표기된 5개 개별 영역 점수는 0-10점까지임.

○ BMSLSS의 영역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가족’, 가장 낮은 영역은 ‘자신의 몸’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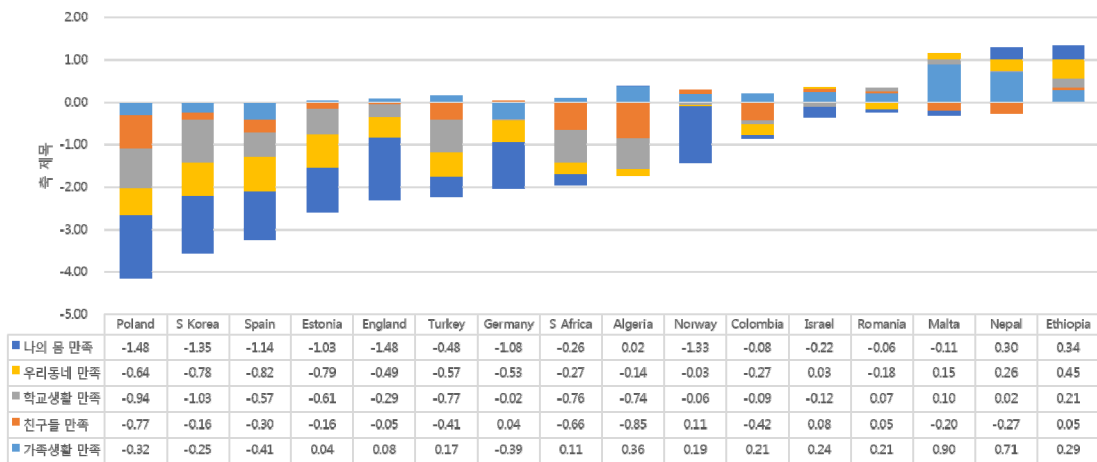
-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가족에 대한 만족도
- 반면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3] 8세와 12세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BMSLSS) 영역별 변화 (pooled-data)

○ BMSLSS의 5문항의 변동 폭을 모두 합하면 평균 하락의 요인을 살펴볼 수 있음

- [그림 4]는 5문항의 변동 폭을 누적적으로 그려 넣은 것임. Poland와 같은 왼쪽 국가들은 모든 문항의 하락으로 모두 0 이하의 수치를 보이지만, Ethiopia는 모든 문항이 증가하여 0 이상의 수치를 보임.
- Poland, Korea, Spain, Estonia, England, Germany 등의 국가들은 5개 영역의 만족도가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자기 자신(자신의 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크게 떨어진 특성을 보임.
- 그러나 국가별로 영역별 만족도의 감소 혹은 증가 폭이 다름.



[그림 4] 8세와 12세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BMSLSS) 국가별 변화

*Note: 여기서 사용된 BMSLSS는 5개 영역 문항의 총합으로 0점부터 50점까지임

3) 분석2: 영역별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비교 분석

- 이 분석은 삶의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 행복감(overall happiness)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는 것임. 주요한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함.
 - 첫 번째는 전반적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BMSLSS의 각 영역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 행복감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임. 연령별, 국가별 분석 진행.
 - 두 번째는 전반적 행복감을 종속 변수로 하고, BMSLSS의 각 영역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여기에 BMSLSS와 연령 간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term)을 투입하여 연령에 따라 각 영역의 효과가 조절(moderate)되는지 살펴보는 것임. 이는 연령을 합산하여 국가별로 분석 진행.³⁾
- 분석 결과, 각 국가별로 BMSLSS가 전반적 행복도를 설명하는데 제각기 다른 특징을 보임(〈표 2〉 참조).
 - 각 국가별·연령별로 설명력(R^2) 크기가 서로 다른 차이점을 보임. 예를 들어, 한국의 만 12세가 .440으로 가장 높고, 네팔의 만 8세가 .04으로 가장 낮음.
 - 그러나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만 8세에 비해 만 12세에 설명력의 크기가 커지는 공통점을 보임.
 - BMSLSS의 5개 영역 모두가 만 8세와 만 12세의 전반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Estonia, Colombia, Ethiopia, Korea, Romania 등임.
 - 한국의 경우, 표준화 회귀계수의 크기를 보면 만 8세에 가족>자기>친구>동네>학교, 만 12세에 가족>자기>학교>친구>동네로 나타남.
-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는 국가별로 무척 혼재되어 나타나는 특징(〈표 3〉 참조).
 - 이 결과는 연령 변화에 따른 효과의 유무가 아닌, 연령 변화에 따른 효과의 크기 변화의 유무를 분석하는 것임. 예를 들어, 만 8세와 만 12세에 특정 영역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크다면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것임, 반면 만 8세에는 영향력이 작았다고 만 12세에 영향력이 커진다면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됨.

3) 이 방식은 박난숙에 의해 한국 아동들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방식을 국가별 분석으로 확대한 것임 (Park, 2005).

- 분석 국가들 전체적으로 가족 만족도와 연령 간의 상호작용 항은 많은 국가들에서 유의하지만 증진효과와 감소효과가 혼재되어 있어 단언하기 어려움. 학교 만족도와 연령 간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한 국가들은 대부분 학교의 영향력이 연령 증가에 따라 강해지는 특성. 아이들의 일상생활환경에서 학교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학교 만족도의 영향력은 증가하지만, 동네 만족도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2〉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4개국, 만 8세와 만 12세 비교, 표준화 회귀계수)

	Algeria		Nepal		Estonia		Spain		Colombia		Turkey		Ethiopia	
	만 8세	만 12세	만 8세	만 12세	만 8세	만 12세	만 8세	만 12세	만 8세	만 12세	만 8세	만 12세	만 8세	만 12세
가족 만족도	.077 [*]	.142 ^{***}	-.040	.144 ^{***}	.144 ^{***}	.235 ^{***}	.275 ^{***}	.187 ^{***}	.090 [*]	.264 ^{***}	.044	.159 ^{***}	.112 ^{***}	.263 ^{***}
친구 만족도	.144 ^{***}	.160 ^{***}	-.006	.099 ^{**}	.196 ^{***}	.193 ^{***}	.133 ^{***}	.194 ^{***}	.083 [*]	.084 ^{**}	.042	.109 ^{***}	.198 ^{***}	.098 ^{**}
학교 만족도	.136 ^{***}	.177 ^{***}	-.001	.208 ^{***}	.106 ^{**}	.115 ^{***}	.029	.151 ^{***}	.080 [*]	.098 ^{**}	.079 [*]	.245 ^{***}	.165 ^{***}	.163 ^{***}
동네 만족도	.022	.165 ^{***}	.127 [*]	.042	.119 ^{***}	.092 ^{**}	.151 ^{***}	.121 ^{***}	.082 [*]	.118 ^{***}	-.010	.089 ^{**}	.120 ^{***}	.216 ^{***}
자기 만족도	.074 [*]	.128 ^{***}	.136 ^{***}	.176 ^{***}	.178 ^{***}	.257 ^{***}	.114 ^{***}	.182 ^{***}	.204 ^{***}	.148 ^{***}	.187 ^{***}	.199 ^{***}	.079 [*]	.127 ^{***}
<i>R</i> ²	.082	.233	.040	.183	.239	.368	.215	.291	.110	.198	.065	.307	.214	.348
<i>n</i>	1129	1172	875	903	993	960	971	1556	780	884	865	985	951	973
	Korea		Germany		Israel		Romania		Norway		South Africa		Malta	
	만 8세	만 12세	만 8세	만 12세	만 8세	만 12세	만 8세	만 12세	만 8세	만 12세	만 8세	만 12세	만 8세	만 12세
가족 만족도	.265 ^{***}	.278 ^{***}	.367 ^{***}	.278 ^{***}	.063	.160 ^{***}	.104 ^{**}	.201 ^{***}	.245 ^{***}	.163 ^{***}	.014	.203 ^{***}	.165 ^{***}	.215 ^{***}
친구 만족도	.149 ^{***}	.160 ^{***}	.116 ^{***}	.203 ^{***}	.166 ^{***}	.168 ^{***}	.118 ^{***}	.137 ^{***}	.143 ^{***}	.188 ^{***}	.127 ^{***}	.059 [*]	.160 ^{***}	.150 ^{***}
학교 만족도	.094 ^{***}	.172 ^{***}	.066 [*]	.168 ^{***}	.208 ^{***}	.125 ^{***}	.099 ^{**}	.179 ^{***}	.059	.144 ^{***}	.111 ^{**}	.076 ^{**}	.015	.251 ^{***}
동네 만족도	.121 ^{***}	.077 ^{***}	.153 ^{***}	.062 [*]	.104 ^{**}	.178 ^{***}	.118 ^{***}	.181 ^{***}	.159 ^{***}	.152 ^{***}	.081 [*]	.128 ^{***}	.150 ^{***}	.112 ^{***}
자기 만족도	.194 ^{***}	.189 ^{***}	.145 ^{***}	.220 ^{***}	.178 ^{***}	.193 ^{***}	.111 ^{***}	.136 ^{***}	.207 ^{***}	.292 ^{***}	.043	.220 ^{***}	.153 ^{***}	.188 ^{***}
<i>R</i> ²	.328	.440	.341	.400	.212	.283	.114	.265	.317	.419	.054	.195	.146	.386
<i>n</i>	2299	2514	908	781	616	794	1068	1428	874	900	995	1130	733	847

Note. ^{*}p<0.05, ^{**}p<0.01, ^{***}p<0.001

〈표 3〉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 상호작용항의 투입 결과 (14개국, pooled dataset, 표준화 회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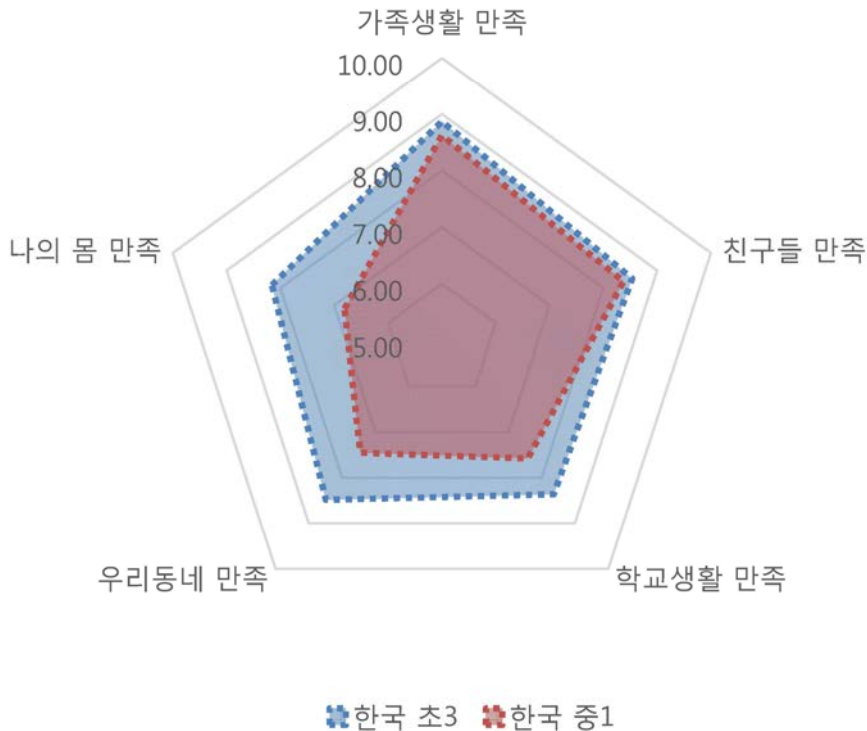
	Algeria	Nepal	Estonia	Spain	Colombia	Turkey	Ethiopia	Korea	Germany	Israel	Romania	Norway	South Africa	Malta
가족 만족도	.125***	.010	.154**	.290***	.103**	.123***	.133***	.283***	.391***	.095**	.130***	.232***	.071*	.158***
친구 만족도	.212***	.062	.208***	.147***	.115**	.138***	.209***	.150***	.128**	.162***	.144***	.149***	.192***	.227***
학교 만족도	.121***	.021	.140***	.051	.087**	.140**	.160***	.100***	.063*	.228***	.133***	.086**	.113***	.047
동네 만족도	.085**	.182***	.128***	.140***	.108**	.025	.149***	.131***	.157***	.099**	.124***	.147***	.125**	.180***
자기 만족도	.092**	.164***	.218***	.167***	.250***	.209***	.102***	.208***	.161***	.229***	.177***	.282***	.124***	.202***
가족 만족도*Age	-.213*	.142	.111	-.325**	.412**	-.188	.215**	-.073	-.368***	.100	.015	-.204	.179*	.095
친구 만족도*Age	-.173*	-.010	-.115	.102	-.101	-.167	-.231**	-.013	.118	-.019	-.055	.104	-.318***	-.410***
학교 만족도*Age	.102	.276**	-.085	.192*	.002	.200	-.024	.151**	.203**	-.203*	.102	.120	-.104	.435***
동네 만족도*Age	.136	-.333**	-.106	-.052	-.034	.120	.103	-.103*	-.176*	.161	.133	.045	-.009	-.194
자기 만족도*Age	.033	-.055	.027	-.003	-.470***	-.063	-.060	-.017	.087	-.141	-.320**	-.043	.109	-.082
<i>R</i> ²	0.184	0.093	0.350	0.297	0.197	0.229	0.274	0.412	0.405	0.266	0.205	0.368	0.158	0.272
<i>Adjusted R</i> ²	0.180	0.088	0.346	0.294	0.192	0.224	0.270	0.411	0.402	0.260	0.202	0.365	0.154	0.268
<i>n</i>	2302	1779	1954	2528	1665	1851	1925	4814	1690	1411	2497	1775	2126	1581

Note. *p<0.05, **p<0.01, ***p<0.001

5. 논의

○ 왜 우리 아이들의 행복도는 빨리 감소할까?

- 연령 증가에 따른 아동 행복도의 감소는 대부분의 조사대상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 이는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의 행복이 연령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과 일치함 (Gilman & Huebner, 2003; Pollard & Lee, 2003; Proctor, Linley, & Maltby, 2009). 하지만 변동 폭은 국가들 마다 상이하다는 점에서 국가 간 환경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
- 비록 아동 행복도 감소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행복도의 감소가 나타나지는 않음. 한국의 경우에도 가족생활과 친구만족도는 높게 유지되면서, 동네만족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약간 감소하고,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그림 5 참조). 특정 영역의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접근해야 할 아동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함.



[그림 5] 한국 아동들의 BMSLSS 결과 비교(만 8세와 만 12세)

*Note: BMSLSS 각 영역의 점수 범위는 0-10점까지임(11점 척도)

- 한국 아동들은 아이들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들이 취약함
 - 표준화 회귀계수로 각 영역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은 가족>자기자신>친구>동네>학교, 중학교 1학년은 가족>자기자신>학교>친구>동네로 나타남.
 - BMSLSS 평균으로 각 영역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은 가족>친구>동네>학교>자기자신, 중학교 1학년은 가족>친구>학교>동네>자기자신임.
 - 자기자신(자신의 몸)에 대한 만족은 초3과 중1의 행복도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실의 만족은 낮게 나타나는 것은 큰 문제임 (Lee & Yoo, In press).
 - 학교에 대한 만족은 초3에 비해 중1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 중1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전체 국가에서 최하위임. 노르웨이 아동들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자기자신(자신의 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지만, 학교생활 만족도는 전체 국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자기 자신의 외적인 것으로 불만족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거울 수 있도록 변화 필요
 -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통한 결과를 통해 두 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첫째, 사람들이 자신의 외적인 것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해야 함.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외적인 특성에 대한 만족을 가장 낮게 하는 이유는 사회분위기가 개인의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차별하기 때문임. 인종차별주의(racism), 성차별주의(sexism)와 같이 외모차별주의(lookism)도 사회전체적인 행복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사회분위기를 개선해 나가야 함.
 - 둘째, 학교에서도 즐거울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함. 물론 우리의 뿌리 깊은 교육제도와 대입제도를 하루 아침에 변화시키기는 어려우며, 그 과정 속에서 경쟁하며 느끼는 괴로움을 하루 아침에 없애기는 어려움. 하지만 점진적으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차별당하지 않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수는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만을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묻고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함.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뿐만 아니라 문제점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아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가정, 학교, 동네에서의 점진적 변화가 필요
 - 아동의 행복은 아이 자신을 둘러싼 가족, 학교, 동네, 그리고 사회에서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하에서 이루어짐. 따라서 아동의 행복도 변화는 일시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환경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임.
 - 각각의 환경에서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그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임.

참고문헌

- 유민상. (2016). *한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Ben-Arieh, A., Casas, F., Frønes, I., & Korbin, J. E. (2014). Multifaceted concept of child well-being *Handbook of child well-being* (pp. 1-27): Springer.
- Cummins, R. (2000). Personal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 review.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 133-158. doi:10.1023/A:1010079728426
- Cummins, R., & Lau, A. (2005). Personal wellbeing index—school children. *Victoria: Deakin University*.
- Cummins, R. A. (1996). The domains of life satisfaction: An attempt to order chao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8*(3), 303-328.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
- Gilman, R., & Huebner, S. (2003). A review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2), 192.
-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49.
- Lee, B. J. (2014). Mapping Domains and Indicators of Children's Well-Being *Handbook of Child Well-Being* (pp. 2797-2805): Springer.
- Lee, B. J., & Yoo, M. S. (2015). Family, school, and community correlates of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Child Indicators Research, 8*(1), 151-175.
- Lee, B. J., & Yoo, M. S. (In press). What accounts for the variation of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a decomposition method stud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 Park, N. (2005).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children and youth: A developmental perspectiv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6*(2), 209-223.
- Pollard, E. L., & Lee, P. D. (2003). Child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1), 59-78.
- Proctor, C. L., Linley, P. A., & Maltby, J.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83-630.
- Seligson, J. L., Huebner, E. S., & Valois, R. F. (2003).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brief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BMSL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2), 121-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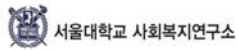
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더 빨리 감소할까?

:국제적 시각에서 본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의 행복감 변화 비교연구



이 봉 주, 유민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일시: 2017년 5월 2일 오후 2시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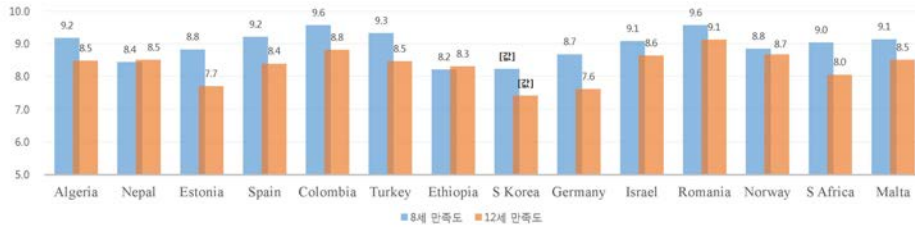
목 차

- I 연구개요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논의 및 결론

I 연구배경



-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 시각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행복도 변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임.
- ISCWEB 조사 결과의 공통된 특징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감소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는 것. 행복도 순위에 관계 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경향 발견됨. 하지만 이러한 감소 경향에도 국가 별로 차이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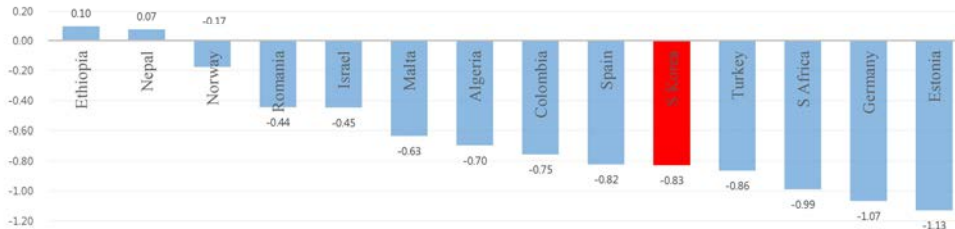
[그림1] 전세계 행복감의 14개국 비교 (단일문항, 0-10점)

3

I 연구배경



- 특히 한국은 행복도의 감소폭이 큰 편임. 초3의 행복도가 하위권이었다가 중1의 행복도가 최하위권으로 변화
- 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더 낮을 뿐만 아니라, 더 빨리 감소되는가?



[그림2] 전세계 행복감의 연령 간 차이 14개국 비교 (8세 행복감-12세 행복감, 0-10점)

4

II 이론적 배경 : 아동발달과 사회환경적 변화



-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변화가 발생하여 행복감이 변화함**
 - ✓ 전반적인 행복도를 분석해보면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 (Park, 2005). 하지만 행복은 다차원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Lee & Yoo, 2015; 유민상, 2016). 따라서 다양한 차원의 아동 삶의 환경의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아동 주관적 행복의 인지적 측면: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영역별 삶의 만족도**
 - ✓ 전반적 삶의 만족도(global life satisfaction)는 삶의 전체적인 측면에 대한 주관적 평가
 - ✓ 영역별 삶의 만족도(domain-specific life satisfaction)는 삶의 중요한 영역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
 - ✓ PWI-SC, MSLSS, BMSLSS가 대표적
- **영역별 삶의 만족도와 전반적 삶의 만족도,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
 - ✓ 영역별 삶의 만족도는 환경의 영향에 더 민감함. 따라서 영역별 삶의 만족도가 전체적인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유용한 작업이 될 것임.

5

III 연구방법



- **분석방법**
 - ✓ 첫 번째는 국가별 BMSLSS에 대한 기술적 분석임
 - ✓ 두 번째는 BMSLSS가 전반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 ✓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16개국의 만 8세와 만 12세 아동임. 16개 국가는 Algeria, Colombia, England, Estonia, Ethiopia, Germany, Israel, Malta, Nepal, Norway, Poland, Romania, S Africa, S Korea, Spain, Turkey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임
- **분석변수**
 - ✓ 아동 삶의 영역별 만족도(BMSLSS)는 가족생활, 친구관계, 학교생활, 살고 있는 동네, 자기 자신의 5가지 영역에 대해 측정
 - ✓ 전반적 행복감(overall happiness)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

6

분석 결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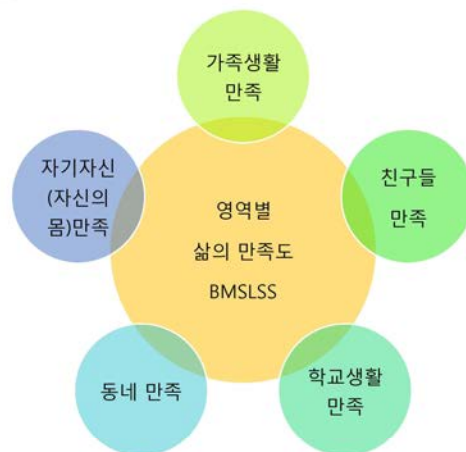
아동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Brief Multidimensional Student Life Satisfaction Scale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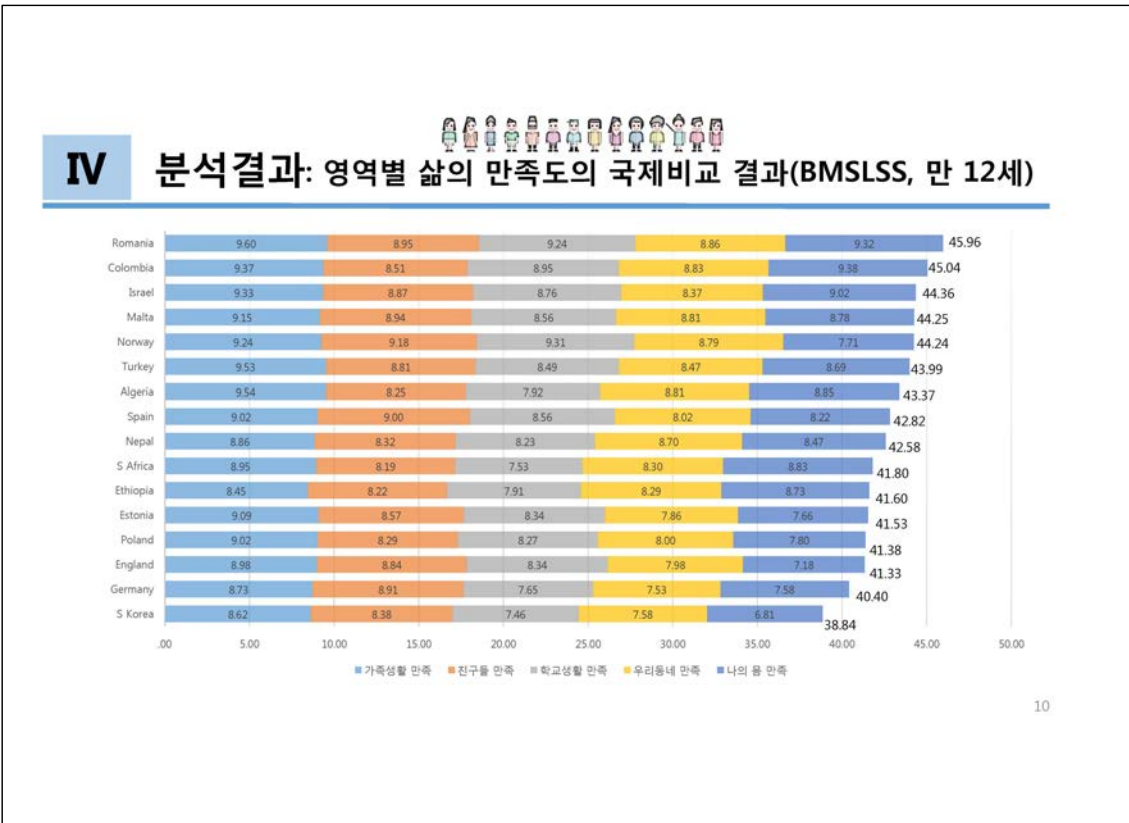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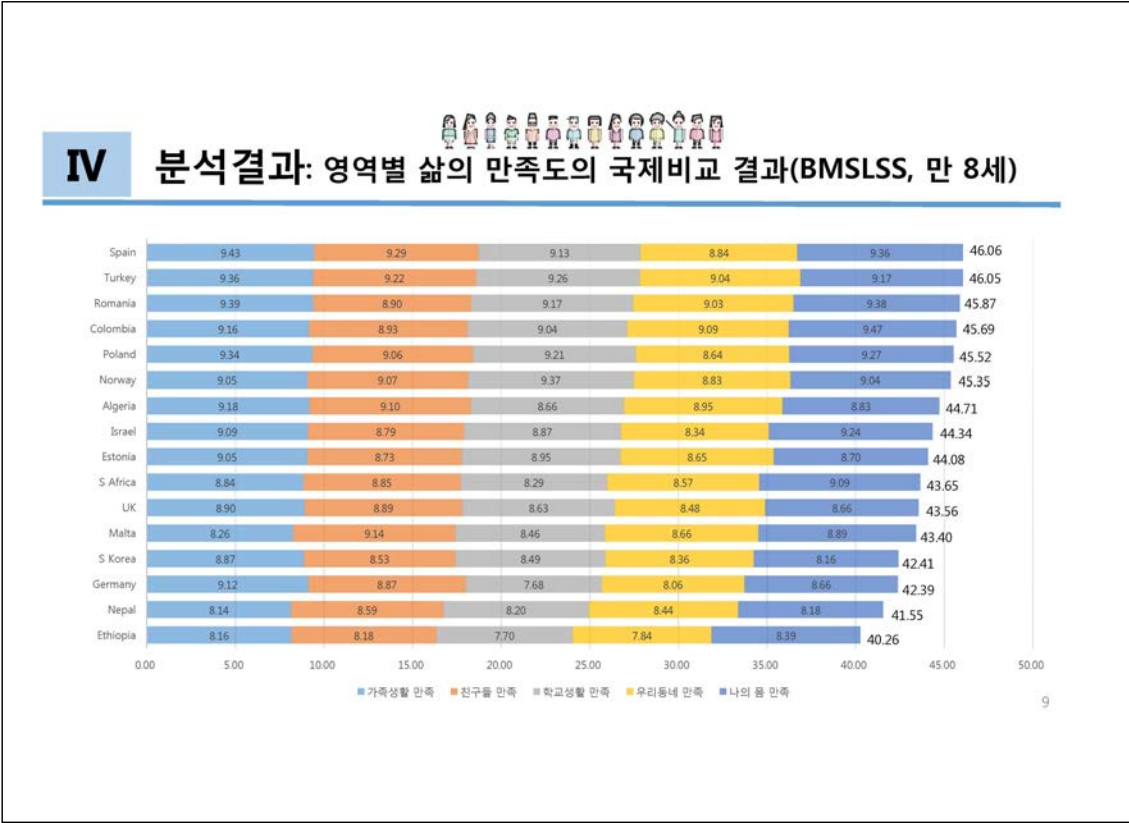


IV 분석결과: 영역별 삶의 만족도(Domain-specific life satisf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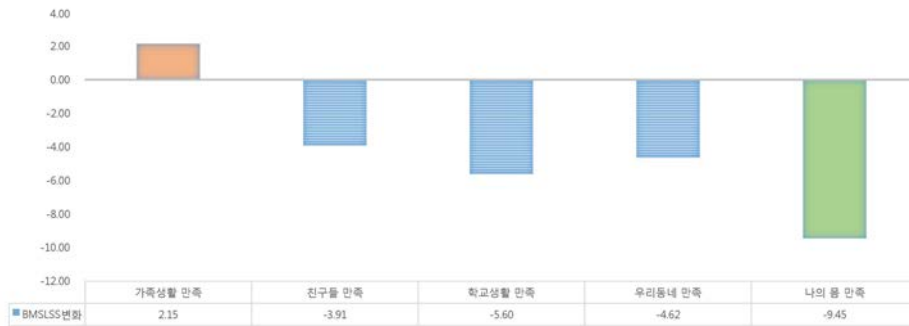
-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아동 행복도가 특별히 낮아지는 삶의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영역별 만족도의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 연구의 간명성을 위하여 축약형 다차원적 학생 삶의 만족도 척도(Brief Multidimensional Student Life Satisfaction Scale: BMSLSS)로 분석함.
- BMSLSS은 가족생활, 친구들, 학교생활, 동네, 자신의 몸 만족도 등 5가지 문항으로 구성.



8



IV 분석결과: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변화(만 8세-만 12세) ①



11

IV 분석결과: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변화(만 8세-만 12세) ②



12

분석 결과2:

영역별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연령과 BMSLSS 영역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IV 분석결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4개국, 만 8세와 만 12세 비교, 표준화 회귀계수)

	Algeria		Nepal		Estonia		Spain		Colombia		Turkey		Ethiopia	
	만8세	만12세	만8세	만12세	만8세	만12세	만8세	만12세	만8세	만12세	만8세	만12세	만8세	만12세
가족 만족도	.077*	.142***	-.040	.144***	.144***	.235***	.275***	.187***	.090 [†]	.264***	.044	.159***	.112***	.263***
친구 만족도	.144***	.160***	-.006	.099**	.196***	.193***	.133***	.194***	.083*	.084**	.042	.109***	.198***	.098**
학교 만족도	.136***	.177***	-.001	.208***	.106**	.115***	.029	.151***	.080 [†]	.098**	.079 [†]	.245***	.165***	.163***
동네 만족도	.022	.165***	.127*	.042	.119***	.092**	.151***	.121***	.082*	.118***	-.010	.089**	.120***	.216***
자기 만족도	.074*	.128***	.136***	.176***	.178***	.257***	.114***	.182***	.204***	.148***	.187***	.199***	.079 [†]	.127***
R ²	.082	.233	.040	.183	.239	.368	.215	.291	.110	.198	.065	.307	.214	.348
n	1129	1172	875	903	993	960	971	1556	780	884	865	985	951	973
	Korea		Germany		Israel		Romania		Norway		South Africa		Malta	
	만8세	만12세	만8세	만12세	만8세	만12세	만8세	만12세	만8세	만12세	만8세	만12세	만8세	만12세
가족 만족도	.265***	.278***	.367***	.278***	.063	.160***	.104**	.201***	.245***	.163***	.014	.203***	.165***	.215***
친구 만족도	.149***	.160***	.116***	.203***	.166***	.168***	.118***	.137***	.143***	.188***	.127***	.059 [†]	.160***	.150***
학교 만족도	.094***	.172***	.066*	.168***	.208***	.125***	.099**	.179***	.059	.144***	.111**	.076**	.015	.251***
동네 만족도	.121***	.077***	.153***	.062*	.104**	.178***	.118***	.181***	.159***	.152***	.081*	.128***	.150***	.112***
자기 만족도	.194***	.189***	.145***	.220***	.178***	.193***	.111***	.136***	.207***	.292***	.043	.220***	.153***	.188***
R ²	.328	.440	.341	.400	.212	.283	.114	.265	.317	.419	.054	.195	.146	.386
n	2299	2514	908	781	616	794	1068	1428	874	900	995	1130	733	847

Note. [†]p<0.05, **p<0.01, ***p<0.001

14



IV 분석결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상호작용항의 투입 결과

(14개국, pooled dataset, 표준화 회귀계수)

	Algeria	Nepal	Estonia	Spain	Colombia	Turkey	Ethiopia	Korea	Germany	Israel	Romania	Norway	South Africa	Malta
가족 만족도	.125***	.010	.154***	.290***	.103**	.123***	.133***	.283***	.391***	.095**	.130***	.232***	.071*	.158***
친구 만족도	.212***	.062	.208***	.147***	.115**	.138***	.209***	.150***	.128***	.162***	.144***	.149***	.192***	.227***
학교 만족도	.121***	.021	.140***	.051	.087**	.140**	.160***	.100***	.063*	.228***	.133***	.086**	.113***	.047
동네 만족도	.085**	.182***	.128***	.140***	.108**	.025	.149***	.131***	.157***	.099**	.124***	.147***	.125**	.180***
자기 만족도	.092**	.164***	.218***	.167***	.250***	.209***	.102***	.208***	.161***	.229***	.177***	.282***	.124***	.202***
가족 만족도*Age	-.213*	.142	.111	-.325**	.412**	-.188	.215**	-.073	-.368***	.100	.015	-.204	.179*	.095
친구 만족도*Age	-.173*	-.010	-.115	.102	-.101	-.167	-.231**	-.013	.118	-.019	-.055	.104	-.318***	-.410***
학교 만족도*Age	.102	.276**	-.085	.192*	.002	.200	-.024	.151**	.203**	-.203*	.102	.120	-.104	.435***
동네 만족도*Age	.136	-.333**	-.106	-.052	-.034	.120	.103	-.103*	-.176*	.161	.133	.045	-.009	-.194
자기 만족도*Age	.033	-.055	.027	-.003	-.470***	-.063	-.060	-.017	.087	-.141	-.320**	-.043	.109	-.082
R ²	0.184	0.093	0.350	0.297	0.197	0.229	0.274	0.412	0.405	0.266	0.205	0.368	0.158	0.272
Adjusted R ²	0.180	0.088	0.346	0.294	0.192	0.224	0.270	0.411	0.402	0.260	0.202	0.365	0.154	0.268
n	2302	1779	1954	2528	1665	1851	1925	4814	1690	1411	2497	1775	2126	1581

Note.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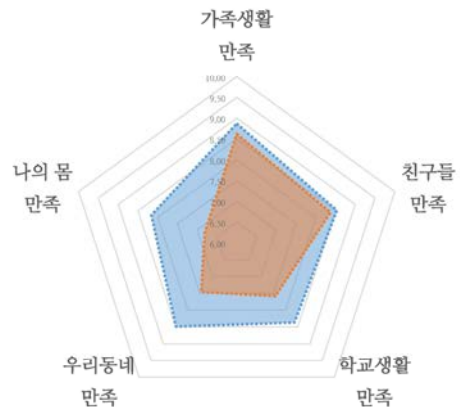
15

IV 논의 및 결론



● 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더 빨리 감소할까?

- ✓ 연령 증가에 따른 아동 행복도의 감소는 대부분의 조사대상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변동 폭은 국가들 마다 상이함
- ✓ 한국의 경우에도 가족생활과 친구만족도는 높게 유지되면서, 동네만족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약간 감소하고,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16

IV 논의 및 결론



- **한국 아동들은 아이들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들이 취약함**

- ✓ 표준화 회귀계수로 각 영역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은 가족>자기자신>친구>동네>학교, 중학교 1학년은 가족>자기자신>학교>친구>동네로 나타남.
- ✓ BMSLSS 평균으로 각 영역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은 가족>친구>동네>학교>자기자신, 중학교 1학년은 가족>친구>학교>동네>자기자신임.

- **자기 자신의 외적인 것으로 불만족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거울 수 있도록 변화 필요**

- ✓ 사람들이 자신의 외적인 것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해야 함
- ✓ 학교에서도 즐거울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함
- ✓ 아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가정, 학교, 동네에서의 점진적 변화 필요

17



감사합니다

18

토론문

김광혁_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경상_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정희_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팀장

윤소영_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장

한상윤_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토론문 1

김광혁_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세 가지 연구의 의의

1. 이론적 의의

-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 연구들에 기초한 삶의 질 수준 또는 영향 요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옴. 그러나 (몇몇 한계가 없을 수 없겠으나)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을 상대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이 분야 이론발전에 기여를 함.
- 구체적으로 아동의 여러 발달 시점을 국가 간에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기존 이론의 세분화 함께 새로운 가설을 제시함. 또한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영역)들을 세분화하여 비교함으로써 기존 이론의 구체화 또는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실천 및 정책적 의의

- 아동 행복과 발달 지원을 위한 강조되어야 할 개입의 지점을 보다 명확히 보여줌. 더불어 이러한 개입의 지점이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함으로 보여줌.
-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인 가족, 지역 사회,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보여줌.
- 우리나라 아동이 다른 나라 아동에 비해 행복하지 않으며, 일부 편향된 분야에서 발달이 두드러지고 있거나 만족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한 국가 간 비교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발달 지원정책의 방향 수정될 부분, 보다 가중치를

주어야 할 부분 등을 제시함. 이는 정책적, 정치적 판단의 근거로 매우 의미 있음.

3. 연구 수행 및 지원 기관의 역할

- 아동의 행복과 발달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연구와 정책개발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제안 및 수행하고, 지원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세이브더칠드런의 역할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었다고 판단됨. 특히 세이브더칠드런은 장기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아동행복과 발달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역할을 수행함.

■ 연구의 주요한 발견 및 논의가 필요한 부분

1.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감 수준과 특징

- **절대적인 필요 수준 vs. 상대적인 필요 수준.** 우리나라의 경우, 자신의 행복이나 만족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다른 판단 기준 적용의 모습을 보여줌.
- **가족, 지역공동체, 학교의 중요성을 확인.** 아동발달의 핵심 요소인 가족, 지역, 학교에 대한 만족도 실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줌.
- **아동발달 영역 중 신체 영역에 대한 강조 경향을 보여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발달 영역 중에서 성적과 관련된 인지 및 언어 영역의 발달을 강조해 왔으나 최근 신체적 영역에 대한 강조 현상을 확인해 줌.
- **우리나라의 낮은 아동권리의식을 재확인.**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의식이 낮은 수준이라는 부분은 널리 알려진 부분이었으나 이를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재확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권리 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의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여전히 의문이 있으며, 아동권리의 침해가 부모 및 성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 교육의 대상이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및 성인에게 집중될 필요도 있음.
- **‘우리나라 아동은 언제부터 행복감이 낮은 것일까?’** 본문의 ‘우리나라 아동은 언제부터 행복감이 낮은 것일까?’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음. 본 연구는 아동발달의 전 과정을 분석한 것이 아니며, 기존 연구에 비해 보다 이른 시기를 분석하여 논의를

확장한 의의를 가짐. 그러나 언제부터 낮아진다는 명확한 시점을 밝혔다고 보기는 어려움.

- **연구결과의 해석의 근거 부족.** 연구결과의 해석에서 이론적인 근거나 (실증적인) 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추측성 설명이나 확대 해석이 일부 있음(아마 공동으로 수행된 다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설명한 것으로 판단됨).
- **자기기입식 조사가 가능한 아동발달 시기에 대한 고민 필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은 자기기입식 응답이 가능한 최저 연령’이라는 기술에 대한 고민 필요.

2.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요인

- 아동의 행복과 관련된 요인을 영역별로 분석하여 제시함. 또한 발달 단계에 따라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진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보여줌.
- ISCWEB 조사에서 8세, 10세, 12세 중에서 8세와 12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유는 특정한 이유가 있는가? 행복 요인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진에서도 10세 조사를 포함한 분석을 고려했을 듯함.
- 학생생활만족도 척도(SLSS) 7문항 중 4문항만을 선택한 이유와 근거를 기술할 필요가 있음.
- 같은 분석을 <표 1>과 <표 2>로 나누어 분석한 이유는 무엇인가? <표 2>에 근거한 해석이 보다 타당하고,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이 연령 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었으나 보다 완성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변수 간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고, 함의를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더 빨리 감소할까?

- 가족, 지역공동체, 학교의 중요성을 재확인. 아동발달과 행복의 기초적인 단위라 할 수 있는 가족, 지역, 학교의 중요성을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보여줌. 더불어 신체적인 영역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줌.

- 본 연구의 결과가 (방법론적으로) '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더 빨리 감소할까?'를 보여주기 어렵다고 판단됨.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도 다른 나라 아동에 비해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해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도 행복감이 이미 낮은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도 가능하며, 가장 안 좋은 상태를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감은 특정한 시점에 낮아지기보다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본 연구의 주제인 '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더 빨리 감소할까?'라는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보다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더 정확히 말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 행복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중학교 1학년에 행복감의 감소폭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아동발달과 행복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사회환경적 요인 또는 사회환경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ISCWEB 조사의 8세, 10세, 12세 중에서 8세와 12세 두 시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해 변화나 변화의 경향을 분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변화나 변화의 경향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10세 집단에 대한 조사 결과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제언

- 아동의 행복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의 큰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결과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례나 집단이 종종 있음. 이러한 의심의 근거로 주로 척도의 적합성, 조사 대상의 대표성, 문화의 차이로 인한 조사 결과의 왜곡 등을 이유로 들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함께 제시된다면 정책과 실천 현장에서 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토론문 2

이경상_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이브더칠드런의 관계자 분들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연구진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감 수준과 특징 : 16개국 비교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요인’, ‘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더 빨리 감소할까?’의 3편의 논문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한국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의 삶의 실태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토론삼아 몇몇 분석결과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 우선 눈에 띄는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16개국 중 14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입시와는 다소 멀어보이는 연령대인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의 제1차(2015~2019년도)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아동행복도 증진,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 조성’을 목표로 내세워서 10년 이내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지수 점수를 OECD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 방향성의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다음으로 가족영역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에 대한 부모님의 존중, 공평한 대우, 함께 보내는 시간 등의 지표가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귀분석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는 아동이 부모, 후견인 등에 의해 양육

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정신적 폭력, 신체적 폭력, 상해,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영역에서 선생님의 존중, 공평한 대우 등의 지표도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분석에서도 선생님과 관계가 아동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동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도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보호 종합대책이 시행중입니다만, 특히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대상의 교육, 부모대상의 교육, 선생님대상의 교육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2015~2019년도)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설정한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다음으로 친구관계입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의 친구에 대한 만족, 친구들이 잘 대해줌, 친구들이 많음 등 친구관계의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분석에서도 친구와의 관계가 아동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화 과정에서의 중요한 유의미한 타자들 (Significant Others) 중의 하나인 친구관계가 이렇게 낮게 나타난 것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종합계획이 실시중입니다만,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는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연역적 접근이 힘들다면, 토론식 참여형 수업을 통하거나 활동프로그램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다음으로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의 학교에 대한 생각입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학교가는 것이 좋음 등의 지표들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입시 위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학교의 학습과정이 창의적 체험활동처럼 아동들의 참여에 의한 창의적 학습과정이 더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학교영역에서의 안전, 동네영역에서의 안전 지표 등의 순위가 최하위로 낮게 나타난 것도 중요한 분석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성북구에서 최초로 인증받은 후 여러 지자체에서 인증을 추진중인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인증이 대부분의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방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토론문 3

류정희_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팀장

□ 논의의 종합

- 본 연구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일련의 흥미로운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언제부터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은 낮아지는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감 수준과 특징
 - 주관적 행복감에 있어서 연령별 결정요인은 어떻게 다르고 같은가?-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 아동들의 행복요인 비교
 - 왜 우리아들의 행복은 더 빨리 감소하는가?: 국제적 시각에서 본 초3에서 중1까지의 행복감변화 비교연구

- 연구결과 및 의의
 - 우리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주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학업과 사교육부담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8살(초3)아동들의 행복감 수준은 역시 낮음
 - (물질적 결핍) 객관적 물질적 결핍과 주관적 물질적 만족도의 차이 나타남. 이는 UN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16)에서 한국의 낮은 행복도의 설명요인 “주관적 인식”의 결과라는 점과 맥을 같이함.
 - (학교) 학교관련 요인은 12세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은 영역.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등 여타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 조사에서도 관계 및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난 바 있음.

- (외모) 키, 몸무게, 얼굴 등 외모에 대한 만족도 최하위로 나타남. 외모지상주의(Lookism)의 내면화로 이해할 수 있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능력과 노력에 비해 외모에 따른 보상과 기회가 높은 현실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관계의 빈곤) 시간사용패턴 결과, 방과후 교육에 많은 시간 사용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남. 이처럼 저녁이 없는 삶, 빈곤한 가족관계의 경험은 경쟁중심의 친구 및 또래집단, 놀이와 문화가 없는 공동체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빈곤으로 이어짐.
- 이 모든 것에 작동하는 것은 무한경쟁과 비교라는 기제가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제적 불평등 심화가 그 기저에 깔려있음.
- 연령에 따른 변동폭의 국가별 차이는 아동성장에 따른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삶의 다양한 영역별(개인적, 가족적, 환경적) 만족도의 감소양상을 분석결과, 연령별, 환경별 아동행복의 증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필요.

□ 주관적 행복감 연구결과의 해석

- 빈곤, 물질적 결핍 및 박탈과 주관적 행복감(물질적 영역)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 필요
-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 소득불평등(지니계수)과 행복불평등(행복지니계수)의 관계
 - 일반적으로 행복지니계수는 소득지니계수의 절반수준, 그러나 한국의 경우 소득 성장과 분배구조에 비해 행복의 분배구조가 더 나쁜 결과를 보임
 - 행복불평등(UN 행복보고서)-개별응답자들의 만족도가 국민전체 평균과의 표준편차가 한국이 타 동아시아 국가보다 높음
 - 사회경제적 지위, 계층별 행복불평등의 수준은 다르며, 소득집단별, 직업별로 뚜렷한 행복감 격차 나타남
 - 2000년-2009년 한국의 행복불평등(2.03점)은 OECD평균(1.99점) 이상을 기록해

왔음

- 영향요인은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도 함께 고려해야함
-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고 나면 그때부터 행복도는 추가 소득에 비례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평선을 유지

○ 사회적 관계의 빈곤과 행복감의 관계

- 본 연구 결과, 친구 및 대인관계는 8세 아동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 중 하나로서 이것은 OECD행복지수를 활용한 ‘한국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와 유사함.
 - 소속감, 주변환경에 적응하지 못함, 외로움 등에서 한국아동들은 최저치를 보임.
- 이는 2015년 OECD 최저(36위)를 기록한 사회적 관계(community)지수 결과와 일맥상통함.
- 일가정 양립 정책(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2007)이 본격화된지 10여년의 세월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일과 삶의 불균형배분은 심각함
 - Better Life Index에서 일과 삶의 균형은 OECD국가 중 33위아동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

□ 아동일반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전략의 모색 및 수립이 필요

토론문 4

윤소영_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장

발제문에 대해 몇가지 생각과 의견을 더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8세 아동의 시간사용 및 이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접하면서, 이것이 비단 초등학교 8세만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삶의 영역에서 노동과 노동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것에 집중했던 한국사회에서 그 이외의 삶의 영역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상황은 이러한 어렸을 적의 일과 삶의 불균형이 이후의 삶의 영역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예를들어 문화 및 여가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그리고 시간과 금전 자원이 주어져서 하고 싶은 문화 및 여가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과거에 그러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새로이 접근하기 어렵다. 다른 말로 '여가경력'(leisure career), '여가의 사회화'(leisure socialization)라고 표현된다. 따라서 생애주기 초반의 일과 일 이외의 삶의 영역에 대한 균형(구체적으로는 여가나 문화생활의 경험)을 위한 시간 배분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준다고 볼 때 8세 아동의 시간사용의 현실과 최하위의 만족도 수준은 우리의 균형적 삶의 미래가 걱정되게 만든다.

둘째, 아동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M. Seligman(2002)은 그의 저서 '진정한 행복'에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생활속의 3가지 경험속에서 유래한다고 한 바 있다. 즉 규칙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the pleasant life), 만족스러운 활동에 고도로 몰입하는 경험을 하는 것(the engaged life), 보다 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을 경험하는 것(the meaningful life)이다. 이에 Sirgy와 Wu(2009)는 그 외에 균형있는 생활(the balanced life)이 주관적인 웰빙(SWB)에 영향을 준다고 강

조한 바 있다. 이러한 생활경험의 장면에서 행복을 경험한다고 본다면, 이러한 생활경험을 반영한 요인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생활경험적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발표자료에서 "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더 낮을뿐만 아니라 더 빨리 감소되는가?" 문제제기에 대해, 반대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 질 수 있을까?의 문제로 전환하여 생각해보기로 하자. 앞서 행복한 생활경험 측면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행복한 생활경험을 늘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개인적으로는 즐거움의 경험적 요소를 늘려주는 것이라 본다. 스스로 재미를 찾아서, 스스로 선택하고, 재미있는 장면에 노출되는 경험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경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본 토론자는 이러한 접근의 하나의 방법으로 생애주기 초기부터 다양한 활동에의 경험을 늘려주는 것을 제안한다. 선택지를 다양하게 하고, 그 선택지안에서 스스로 경험한 행복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교육과 여가활동에의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것에 몰입하여 행복감을 느끼며, 그러한 행동을 통해 사회와의 관계속에서 자신의 독특함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는 기본적으로 생활시간 구조상의 균형을 통해 가능하다고 볼 때 시간

관리의 능력과 균형있는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방안이 제안된다.

토론문 5

한상윤_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I. 들어가는 말

올해 들어 한국사회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들이 무척 활발하다. 미국 뉴욕시립대 학 대학원 센터 케시데이비슨 교수는 4차산업혁명의 도래는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며, 2011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65%는 대학졸업 후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옥스퍼드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면 미국 고용자의 절반 가까이가 하고 있는 일이 자동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때문에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극복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는 미래를 위하여 교육을 걱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물론 본래 모든 시대의 교육은 다가올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성취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은 매우 통렬하다. 앨빈 토플러가 갈파한 것처럼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아직 학교는 30마일 정도로 달리고 있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교육에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초등 3학년 학생들에게 필요도 없을 지식을 배우기 위해 학교와 학원에서 문제풀이식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심지어 어떤 초등학생들은 1주일에 10개 이상의 학원 순례를 하고 있다. 이것은 공부라 아니며, 공부라는 미명하에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동 학대 수준에 가깝다¹⁾.

1) 일반적으로 많은 조사에서 이런 아동학대는 이른바 비교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권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일정 수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지도층들(?)이 앞에서는 아동 인권을 설파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반자동적, 반 인권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교육이 진정으로 걱정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안재진 교수님, 김선숙 교수님, 이봉주 교수님의 발제문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토론자는 세 분 교수님의 의견에 100% 동의한다. 따라서 토론자는 이 점에 더하여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토론자는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전반적 토론, 특히 국제비교 등 본격적인 이론적 토론, 학술적 토론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세 분 교수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가급적 초등학교 3학년생을 중심으로 토론자가 몸담고 있는 초등교육분야의 현상과 희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제시하는 희망들이 다소 논리성이 부족하거나 거칠어도 많은 이해를 바란다. 다만, 여기서 제시하는 희망들과 의견들은 현장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들이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사람을 잊지 않고 이렇게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II.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들

최근에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통령선거의 국면을 맞이하여 여러 후보들이 교육에 대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당연히 교육공약에 쏠릴 수밖에 없다. 다수의 교육공약 중에서 교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부 폐지 내지는 축소 공약이다. 왜 대선 후보들이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을까? 핵심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육계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이다. 이를 맞이하여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한국 교육에 대한 요구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토론자가 재직하고 있는 교육청과 초등교육계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을 시간 관계상 2가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을 욕망을 지닌 인간으로 인정하자

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이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론자는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다. 따라서 학문적인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다만 한 가지 학교 경영을 하면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을 하면서 겪은 것을,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학생들을, 아동들을 욕망을 지닌 인간으로 대하고 인정하자는 것이다.

어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아동은 욕망이 없는 존재’라고 치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떠한 선택권도 주지 않고 부모의 강요만이 주어진다. 심지어 학원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 그러나, 가만히 이들을 살펴보면 이들도 욕망이 있으며, 그 욕망은 복잡다단하고, 또한 그 욕망은 매우 변덕스럽다.

아동들의 행복의 출발점은 아동들이 어른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비로소 인정하는 지점에서 출발된다. 다시 말하면, 아동을 보는 어른들의 관점, 어른들의 기본철학이 바뀌게 될 때 아동들은 불행의 그늘, 불행의 감옥으로 부터 탈출, 탈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아동의 놀 권리도 인정되고, 사문화되어버린 아동관련 헌장들도 빛을 볼 수 있다.

2.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대입제도 도입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입학제도가 초·중등 교육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혹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속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현행 대입제도는 사회 양극화를 더 부추기도 있다. 그 결과 한국 대학입학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행 대학입학제도를 지대추구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꼽는다. 안재진 교수님이 발제한 ‘삶에 대한 만족도 지표 순위’를 살펴보면 16위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학교영역에서 ‘학교 성적’, ‘선생님들과의 관계’, 관계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최하위(조사대상 16개국 중 16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대학 입시가 초등 3학년생에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인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감성적 지능과 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고 있는가?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평가, 대학입학수학능력평가 등 많은 평가가 선택형이 기본이 되고 있다. 이 선택형 평가는 좀 과장하여 표현하면 사실상 누가 빨리 풀 수 있는가의 속도 경쟁이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빨리 문제를 푸는가를

재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평가가 아닌 측정이다. 따라서, 대입에 모든 것을 거는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수업이 아닌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진도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학생들은 밤늦게 까지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을 터득하는 공부(연습)를 하거나, 학원으로 가서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푸는 요령(비법)을 배운다.

한편,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학교나 한 학년이 동시에 실시하는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전체나 학년 전체가 실시하는 지필고사를 실시하지는 않으나, 학급별로 진단평가, 단원평가 등의 이름으로 선택형 지필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문화이기 때문에 교사들로서는 이런 압력을 견디어내기가 쉽지 않다. 중학교에 가면 선택형중심의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데, 학부모들이 학교에 이에 대한 대비를 강력하게 요청할 경우 거부가 쉽지 않다.

이처럼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가가 아닌 측정에 가까운 평가로 인하여 수업도 미래역량을 기르는 진정한 수업이 아닌 시험 대비용, 암기용, 문제풀이용 수업, 단편 지식 알기 수업 등 파행적 수업²⁾이 이루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수업에 까지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입학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인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감성적 지능을 평가할 수 있는 대학입학시험 제도³⁾로 바꾸어야 한다.

Ⅲ. 한국 미래교육을 위한 작은 바람

한국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예산의 투입이 절실하다. 제2차세계대전후 광복을 맞이한 국가 중에, 또한 대규모 전쟁을 겪은 나라 중에 이렇게 짧은 기간 만에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나라는 거의 없다.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중에 중요한 것으로 세계는 교육을 꼽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교육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칭송을 받던 교육이 이제는 나라 안에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교육이 다시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계가 뼈를 깎는 고통

2) 최근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전국 최초로 선택형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웃지 못할 보도 자료를 내기까지 했고, 일부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3) 구체적인 대학입학시험제도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을 수반하는 파괴적 혁신을 해야 한다. 교육계가 자기주도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계를 타자적 관점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초등교육에 대한 작은 바램 4 가지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안재진 교수님의 발제 원고에서 ‘초등학생 삶에 대한 만족도 지표 순위’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에서의 순위가 유독 낮게 나왔다⁴⁾. 이것은 초등학교 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인 학습의 개인화, 개별화, 맞춤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방증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매우 필요하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감축된 것은 사실⁵⁾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산업화시대에 필요한 노동력을 육성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건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교육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교의 경우 과거와 같은 주입식 교육을 하기 어렵다. 완전하지는 않으나 토론형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 맞춤화 학습을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과 계약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교사가 매일매일 학생 개개인에게 무슨 학습을 해야 할 지를 계약을 통해서 수업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대도시의 다인수 학급에서는 학습의 맞춤화, 계약제 수업과 학습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필요하다.

2.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의 도입과 고도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최근의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실 수업을 분석하는 상황을 보면 마치 2차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특히 이런 감정은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을 시청할 때 더욱 더 그렇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 중계방송을 시청하게 되면 선수 개개인별로 움직인 총 거리, 패스 성공률, 팀별 공 점유율 등 다양한 통계들이 시시각각 제시된다. 반면에 학교 현장에서의 교실수업은 운동경기의 분석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떤 측면에서는 비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4) 학교 성적 16위, 선생님과의 관계 16위,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 13위, 우리 반 아이들 12위등 모두가 낮은 순위임

5) 1970년대는 1학급당 학생수가 약 70여명, 1학교 학생수가 7,000명~ 8,000명인 학교들이 있었다.

미래사회에는 발제자가 제시한 바처럼, 학습분석의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학습시간, 읽기 활동, 평가, 과제, 미디어활용 등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서 시각화된 결과를 제시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경로와 학습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습분석이 기술적으로 단순해서는 안 되며, 좀 더 고도화 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서 교사 스스로 자기 수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한 수업의 변화와 혁신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장의 역량강화

교실에서의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단위 학교 교육의 질은 교장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장을 양성하는 과정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수 천 명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을 양성하는 초등교장자격증 연수가 고작 약 200여 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짧은 시간을 연수하고서 초등 학교장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너무나 무겁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7시부터 시작되는 돌봄교실과 돌봄교실 학생들의 아침 밥 책임, 일반학생들의 점심 밥 제공과 6시간의 정규수업, 그리고 원하는 학생들의 2~3시간의 방과후 수업, 돌봄학생들 대상의 저녁 10까지 저녁돌봄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학교현장에서 하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이번 대선에 나올 수 있는 초등교육관련 공약이 딱 하나 남아 있다. 그것은 '2018학년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서 학부모들 중 원하는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 온종일 돌봄(24시간)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것이다'는 것이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초등 학교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연수 과정을 통해서 학교장들이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도록 하는 등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4. 담임 및 교과전담 교사의 교사 수 확대

초등교육에서의 수업은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주당 약 22시간 내외의 수업과 학생 상담 업무, 학생 생활지도 업무, 각종 공문처리 업무⁶⁾, 학부모 상담, 각종 연수 등 다양한 업무를 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업무를 해야 하는 담임교사는 학생의 수업과 학습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학

생 생활지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대도시의 경우 다인수 학급으로 인하여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학습은 불가능하다. 특히, 최근 들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⁶⁾으로 인하여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가 폭증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교수학습과 학생 생활교육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만이 아닌 학습부진 종합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교사, 진로교사, 사서교사, 안전교사 등 다양한 교사가 필요하다. 대학에는 다양한 행정 지원 인력이 있듯이 초등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담임외의 비교과 지도교사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

IV. 나가는 말 : 초등 3학년 학생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교사 역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스스로 정보를 찾아 처리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인공지능 기계의 등장은 인간 삶의 여러 가지 양상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미래의 교육은 정보를 탐색하고 조직하여 인문·예술적인 의미를 탐색하고 인간 삶의 본질을 찾는 인문·철학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 막대한 임무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정보전달과 저장 및 문제풀이가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 그에 필요한 전문성은 무엇일까?

미래 인공지능시대의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인공지능 기계가 할 수 없는, 가장 인간적인 활동, 가장 인문학적이며 예술적인 인간 본질적 활동을 주된 학습의 내용으로 삼아 교육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교사는 학생들과 인생을 논하고, 참과 덕을 고민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탐구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교육은 보다 멀리 내다보고, 교육과 인간 삶의 본질을 진지하게 고민한 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월호 사건 이후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과

6) 학교에 따라서는 행정업무를 업무전담팀을 구성하여 업무전담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7)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법에 의하여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가해자, 피해자를 관장하고 가해학생에게 벌을 부과하고, 동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입하도록 하여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심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학부모간·학부모와 학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미래 지향적 교육,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할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인공지능시대의 교사는 인간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적 탐구활동의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되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노력과 전문성이 요청된다. 또한, 교사가 이렇게 미래지향적 교육과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진정한 전문성을 지닌 교사로 다시 태어날 때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생활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